

Sulwhasoo

VOL.78 MARCH/APRIL 2017

Sulwhasoo

Sulwhasoo





Moiré Chair / 광철안
자작나무, 에폭시 수지, 오간자 / 60×58×70cm / 2015

의자 하나가 있다. 의자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평범한 이미지와는 다른, 컬러 블록의 형태로 도무지 편할 것 같지 않는 외형을 보며 자꾸만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된다. 가구 디자이너로 자신의 영역을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작가 광철안이 만든 작품으로 무아레Moiré, 즉 물결무늬가 있는 의자는 실제 앉아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자면, 정말 편안하다. 앉는 순간 터져 나왔던 탄성과 함께 말이다.

“사실 가구 자체가 가지는 기능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기껏해야 높이를 제공하는 것이죠. 의자는 사람의 앉는 높이를, 테이블이나 선반은 사물의 앉는 높이를 결정하는 정도예요. 책상과 식탁의 차이를 기능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잖아요. 더구나 이런 별다른 것 없는 기능 덕분인지 가구는 형태나 소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형태나 소재에 구애받지 않는 작가의 자유분방함은 시대를 관통하며 과거의 소재들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생각지 못한 소재와 그에 따른 독특한 물성을 연구하며, 인고의 손에서 튀어나온 기술로 가구를 만든다. 언뜻 보면 한 가지 컬러 같지만 무늬 때문인지 오묘한 색감을 가진 무아레 체어, 자꾸만 눈이 가고 자꾸만 앉고 싶어진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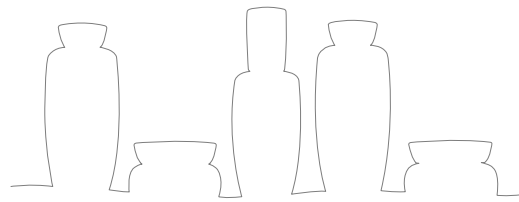
It is a chair. Unlike the ordinary image of a chair that comes to mind, it makes you wonder about the form of a colored block that does not look comfortable to sit on at all. Created by artist Chul An Kwak, who insists that he does not want to limit his talent to furniture design, this chair is called Moiré. The chair that has a wavy pattern is actually very comfortable, based on my experience of sitting on it.

“In fact, the functional meaning of furniture is simple. It provides height, and that’s it. A chair determines the height of the sitter, while a table or a shelf determines the height of object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a desk and a table, functionally speaking. Furthermore, furniture is not bounded by shape or material, probably because of such indistinct function.”

The artist’s liberal thoughts, which are neither bounded by shape or material, penetrate time to bring the materials to the present, and study the unique properties of materials that no one has ever thought of to create furniture with techniques that are demonstrated by his tenacious hands. The Moiré, with its exquisite color brought by its pattern, constantly draws your attention and makes you want to sit on it.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MARCH/APRIL 2017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7,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8 MARCH/APRIL 2017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정대 속에서 발견한 ناد운 아름다움
- 12
피부 섬기기
블룸 브라이팅으로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 올리다
- 16
新 장인을 만나다
가구는 여백이 많은 캔버스다
- 22
공간미감
고즈넉한 정취에 물든 하룻밤, 안동
- 28
건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감의 美를 나누다

발행일 : 2017년 3월 2일(통권 제78호)
발행인 : 심상배 편집인 : 이우동
발행처 :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 권지애, 윤연숙 디자인 : 조윤희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 덕일 인쇄 :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노랫말의 힘
- 44
어우러지다
난의 향기와 자태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다
- 50
설화풍경
도시 안에서 365일 푸르른 청명함을 만끽하다
- 54
설화보감
푸른 봄 채소 먹고 힘내세요
- 60
아름다운 기행
오래된 것에 경이로운 디자인을 입히다
런던 & 부산
- 66
설화수를 말하다
미백에 관한 가장 눈부신 지혜, 자정
- 72
설화공간
피부에 머문 고귀한 빛 설화수 랜턴컬렉션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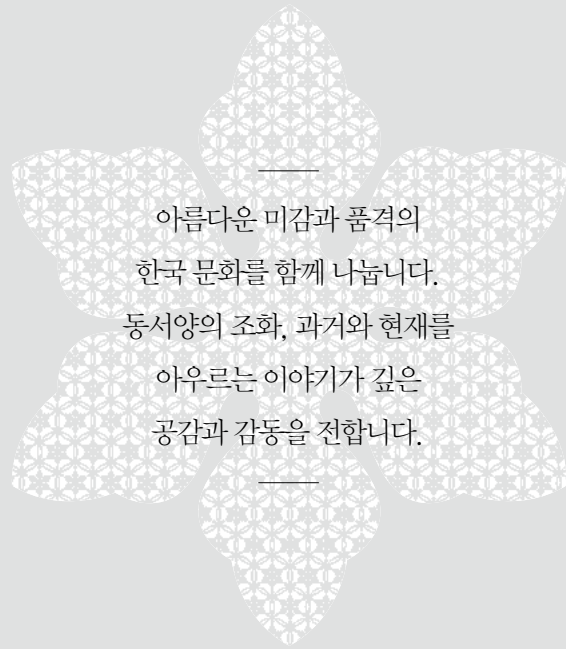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마음을 가꾸고 나를 찾는 향기
- 82
한국의 멋
쓰임에 아름다움을 새기다
- 84
설화애장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
- 86
읽다
다빈치의 유산, 첨단 예술로 돌아오다
- 90
집 안 단장
꽃과 바람 그리고 온기를 담았어요
- 92
몸 단장
봄의 회원처럼, 다채롭고도 고운 자태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경대 속에서 발견한 ناد운 아름다움 True beauty was discovered in the mirror stand

화장품을 뜻하는 Cosmetics는 그리스어 Kosmetikos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Kosmos는 '우주의 질서'라는 의미이다. 즉 태초의 화장은 '우주의 질서에 따라 잘 정돈된 최상의 상태'를 뜻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고대의 화장은 신이나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특별한 의식이 계속 이어져 아침마다 얼굴과 마음을 정성껏 다듬는 습관으로 남은 것이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화장으로 우리는 금세 맑은 피부와 붉은 입술을 갖게 된다. 피곤한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기가 감돈다. 이 마법과도 같은 순간은 우리를 늘 매료시킨다. 그런데 깨끗한 피부와 건강한 혈색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변치 않은 미인의 기준이었던 것 같다. 이를 위한 여인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어져왔으니까.

페이스 파우더, 분 혹은 파운데이션은 가장 오래된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이다. 파우더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BC 4세기 아테네에서는 여인들이 장밋빛과 하얀색으로 얼굴을 꾸몄다고 전해진다. 동양의 경우 중국에서 BC 1100년경 거울과 함께 화장품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온대 지방인 중국은 쌀가루 분을 이용해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유해성이 적고 순해서 14세기 이후 유럽까지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화장 문화가 융성했다. 일본의 백과전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는 백제의 화장 기술을 일본이 배워 갔다는 내용이 나오며, 백제인들이 은은하게 엷은 화장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때 벌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고도의 화장법이

With makeup, you can achieve a clear skin tone and brighter lips. You will no longer look tired, and you will be infused with vitality. This magical moment will always make you look enticing. It seems that clean skin and healthy vitality have always been the timeless standards of beaut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Women's efforts to look good have continued ceaselessly and tirelessly. Face powder or foundation is considered the oldest base makeup product. The use of powder was first recorded in ancient Greece. In 4th century B.C., women ornamented their faces with rosy and white tones in Athens. In the East, cosmetics were used with mirrors in China around 1,100 B.C.

In Korea, the makeup culture has flourished since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In Japan's encyclopedia, <Hwahansamjaedohoe>, it is stated that Japan learned from Baekje's makeup techniques, and that the people of Baekje wore subtle, natural makeup. We can assume that advanced techniques for putting on natural makeup were already popular back then. The



백자 주병은 이민수 작가 by LVS CRAFT, 자개 눈빛 경대와 원패 접시는 모두 이영옥 명장 by 진주셀
옥팔찌와 반지는 모두 Büro.

구현되었을 거라 짐작하게 한다. 한편 신라인들은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의 철학으로 남녀 구분 없이 화장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는 데 열중했다. 신라인들의 백분 제조 솜씨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쌀이나 서속(조와 기장) 등 곡식의 분말이나 꽃씨의 가루, 조개껍데기를 태워 뿜은 분말, 백토나 활석의 분말을 재료로 흰 피부를 표현했다. 또한 잇꽃(홍화)으로 연지를 만들어 이마와 뺨, 입술에 바르고 백단이나 백합의 붉은 수술로 색 분을 만들어 발그레한 홍조를 주었다.

한편 고려 시대에는 초기 제도화된 기생들을 중심으로 짙은 분대화장(粉黛化粧)이 성행했다. 분대화장은 분을 도포하듯 하얗게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그리는 화장법으로, 이러한 화장법은 조선 시대까지 계승된다. 하지만 분대화장을 주로 했던 궁녀나 기생과는 달리, 여염의 규수나 부인들은 평소엔 화장을 하지 않았고 연회나 외출 시에만 열게 하는 정도였다. 또 조선 시대에는 본래의 생김새를 크게 바꾸지 않는 화장법을 선호하며, 화장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이면 '야옹'이라 경멸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도 흰 피부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었다. 잡티 없이 투명하여 옥과도 같은 피부를 위해 오이 꼭지를 얼굴에 문지르거나 꿀 찌꺼기를 퍼 발라 일정 시간 후 떼어내는, 오늘날 팩과 다름없는 미안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화장품이 궁금하다면 <여용국전(女容國傳)>이라는 고전소설을 찾아보길 권한다. 이 작품은 여성용 화장품과 화장 도구를 의인화해 쓴 소설로, 거울·족집게·모시실·수건·경대·세숫대야 등의 화장 도구와 분·연지·머릿기름·밀기름·향·미안수 따위의 화장품 20여 종이 등장한다. S

people of Silla believed in the philosophy of Oneness of Body and Soul, meaning that a beautiful soul lives in a beautiful body, so both men and women focused on putting on makeup and beautifying themselves. They had a rather exquisite level of techniques to produce white powder. They used the grain powder of rice or millet, flower pollen, the ground powder of burnt seashells, white clay powder, or talc powder to highlight the whiteness of the skin.

In the Goryeo Dynasty, on the other hand, heavy powder and dark eyebrow makeup were popular among the Gisaeng, who then became a social system. The heavy powder and dark eyebrow makeup involves applying a thick layer of white powder and shaping the eyebrows thinly and vividly. This makeup style was also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is style was mostly worn by palace maids and Gisaeng; commoners and noble women did not usually wear makeup, and only wore natural makeup for banquets or appointments. In the Joseon Dynasty, they preferred makeup that did not alter one's appearance too much. When someone looked clearly different with makeup, people detested such change in looks.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makeup style during the Joseon Dynasty, we recommend a classic novel titled <Yeoyonggukjeon>. It is a novel that personified women's cosmetics and makeup tools. It discusses about 20 makeup tools, including a mirror, tweezers, ramie yarn, towel, mirror stand, and washbowl, and cosmetic items, including powder, blusher, hair oil, wheat oil, fragrance, and beauty water.



사각 모양을 자유롭게 구성한 운문사 소재의 조각보는 모두 한정예 작가 by Needlestudio, 박지 분청 말티볼은 김상만 작가 by 다이닝오브제, 백자 볼은 이기조 작가, 은은한 색감의 도자기 합은 김규태 작가 작품으로 모두 조은속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볼륨 브라이팅으로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 올리다

The youthful radiance of your skin with Volume Brightening

백삼 속 강인한 효능을 그대로 담아내며 진정한 안티에이징 미백을 실현시키고 있다. 여덟 번의 진화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탄력 어린 미백의 절정,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시 한 번 꽃을 피운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일러스트 임성구

원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원료 중 하나인 백삼은 외국의 기술력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설화수만의 기술력을 집약시키며 절정의 효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백삼에서 효능을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쉬 허락지 않을 것 같았던 숨겨진 백삼의 효능. 인고의 시간과 노력으로 얻어진 백삼사포닌은 설화수 독자적인 특허 미백 성분이자 세계 최초 인삼 유래 미백 성분으로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내·외부적 요인으로 떨어져 가는 젊음을 되살리며 피부 속 탄력과 환한 생기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제품 대비 보습 효능 성분을 2.5배 추출로 농축하여 담은 백삼농축다당체는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한 상태로 피부를 케어하며 피부 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백삼의 진정한 효능을 담은 자정미백에센스는 속에서 탄탄하게, 그리고 겉에서 맑고 윤기 넘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피부로 거듭나게 한다.

It is the most difficult to find and yet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to unravel the effectiveness of the ingredients. White ginseng, one of the ingredients attracting worldwide interest, demonstrates the utmost efficacies through the original technology of Sulwhasoo that cannot be achieved with any other technology abroad. Perhaps its hidden efficacies were not very easy to find. The white ginseng saponin that was acquired through years of painstaking research is Sulwhasoo's original, patented whitening formula, which is the world's first whitening substance that is extracted from ginseng. It restores one's youthful appearance that is threatened by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brings resilience and vitality to the skin. Also,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have concentrated the active hydrators by 2.5 times, and leave the skin thoroughly moisturized to clarify skin tone. Snowise Brightening Serum, with the true efficacies of white ginseng, will firmly fill your skin from deep within, and bring out radiance onto the surface, so everyone will be envious of your skin.





자정미백에센스

속 깊은 광채를 선사하며 화이트닝 마켓에서 독보적인 선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자정미백에센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는다. 아침 저녁 자정수(토너)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비른다. 50ml.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미백 케어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갖고 있던 모든 화장품을 버리고 바꿀 필요는 없다. 유효 성분이 고농축으로 들어 있는 에센스가 미백 케어의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는 지금 시대가 바라는 미백에 대한 현답을 피부에 안겨준다. 피부 표면만 일시적으로 반짝이게 하는 것이 아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우고, 멜라닌을 케어해 볼륨 브라이트닝을 실현시킨다. 한층 더 강력해지고 업그레이드된 백삼사포닌과 기존 제품 대비 2.5배 순도로 농축한 백삼농축다당체의 효능은 물론이요, 미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상백피가 더해지며 그동안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피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탱글한 젤 타입의 텍스처는 바르는 순간 품고 있던 브라이트닝 성분을 피부 곳곳에 퍼트리며 힐링의 감성까지 선사해준다. 자정미백에센스와 함께한 일주일 후, 칙칙한 피부 톤은 어느샌가 거울 속에서 사라지고 어느 곳에서도 생기 있게 빛나는 얼굴을 만나게 된다. S

It is not too late. You can become more beautiful if you are willing to commit to a brightening routine. There is no need to throw away all of your cosmetic products, and buy new ones. The serum has concentrated active ingredients and plays a central role in brightening care. Sulwhasoo Snowwise Brightening Serum is the wise solution to brightening today. It will not brighten the surface of your skin temporarily, but firmly replenish your skin from the inside, and remove melanin for Volume Brightening. The new and improved white ginseng saponin and white ginseng polysaccharide extract that has been concentrated 2.5 times have been further enhanced with mulberry bark to boost efficacies and create a whitening environment. Your skin will be endlessly energized. The thick, gel-type texture disperses the brightening formula upon application to heal the skin's flaws. Try Snowwise Brightening Serum for a week, and you will no longer find dull skin tone when you look in the mirror, and see radiance instead.

볼륨 브라이트닝 마사지법 Volume Brightening Massage

볼륨 브라이트닝 마사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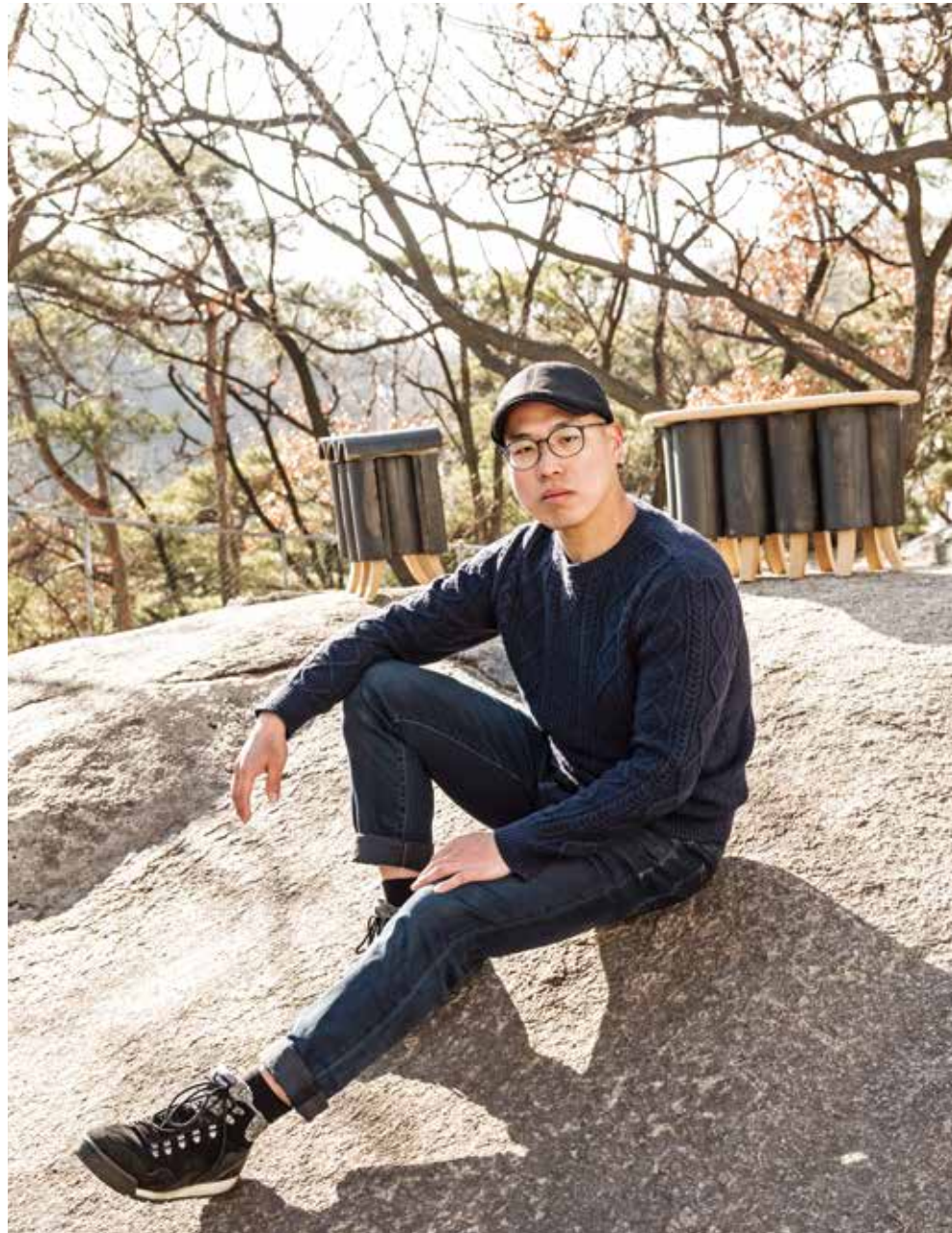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얼굴 중심에 집중된 피부 그늘화 현상의 원인인 탄력 저하와 칙칙한 안색을 교정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마사지

What is Volume Brightening Massage?

A massage for a clear and transparent complexion that uses the first nodes of your thumbs to correct skin resilience, dullness, and darkening at the center of the face.



<p>Step 1 이마 부위 미간 중앙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미간 중앙에서 관자놀이까지 밀어준다. Forehead area Gently press the point between the eyebrows, and push toward the temples.</p>	<p>Step 2 눈가 눈 안머리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눈 안머리 → 눈 전체 → 귀 윗부분의 순서로 밀어준다. Eye area Gently press the inner ends of the eyes, and push around the eyes toward the top of the ears.</p>	<p>Step 3 볼 부위 콧방울 옆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콧방울 → 광대 아래 부위 → 귀 중앙의 순서로 밀어준다. Cheek area Gently press the points next to the nostrils, on the nostrils, beneath the cheekbones, and on the center of the ears.</p>	<p>Step 4 입 주변 턱 아래 중앙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 입꼬리 필자 부위 → 귀 아래쪽의 순서로 밀어준다. Lip area Gently press the center of the chin → nasolabial folds → under the ears.</p>
--	---	--	---



가구는 여백이 많은 캔버스다

Kwak Chul An

가 구 디 자 이 너 곽 철 안

가구 디자이너인 그를 대표하는 소재는 예상 밖으로 '기와'와 '한복을 짓는 원단'이다. 한국적이란 점에서는 아주 친숙한 소재이지만 물성이란 측면에선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런 선택은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일까?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먼저 <설화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 궁금하다. 물결무늬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무아레(Moire) 효과를 적용한 '무아레 체어'다. 어릴 적 커튼을 보면서 같은 패턴의 문양이 겹치면 시점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이는 현상이 무척 흥미로웠다. 언젠가 이용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소재를 찾지 못하다가, 텍스타일 아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들고 온 한복의 오간자 실크 원단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간자를 두 겹으로 겹치면 경사(날실)와 위사(씨실)가 연출하는 물결무늬 패턴이 생기는데, 어느 시점에 가장 좋은 물결무늬 패턴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서 에폭시 투명 레진 코팅을 한 것이다.

독특한 작업을 하면서 일종의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다. 그리고 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는 짙은 색 원단을, 위에는 옅은 색의 원단을 배치했을 때 흥미로운 패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하우도 생겼고, 보색일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필 의자였느냐고 묻는다면,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의자는 가구의 기본이기도 하고, 조형보다 소재 자체에 의미를 둔 작품이기 때문이다.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hear about the piece on the <Sulwhasoo> cover. This is the 'Moire Chair' that utilized the Moire effect, which originated from a French word, meaning wavy pattern. When I was young, it was very interesting to find that the color of the curtains looked different from various angles when the same patterns overlapped. I thought I should use that concept one day, but I didn't know where to use it until I saw the organza silk texture of Hanbok that was brought by a group of Textile Art students. When you overlap two layers of organza, the warp and the weft create a wavy pattern. I figured out where the best wavy pattern is created, and then coated it with clear epoxy resin.

You must have developed a sort of know-how with this process. And is there specific reason you chose a chair? I obtained some know-how when I learned that an interesting pattern can be created with a darker piece of textile on the bottom and a lighter piece



기와와 한복에 쓰이는 옷감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들은 '무엇이 한국적인가?'란 식상한 문제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보여준다.

무어레 চে어가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리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디자인과 기능성이 충돌할 때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는가? 기본적으로 가구는 '높이'를 제공하는 정도의 기능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앉는 높이와 눕는 높이, 옷을 넣는 높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구다. 따라서 끼어들 영역이 많다.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공학이 끼어들기도 하고, 예술적 접근도 가능한 대상이다. 바로 그 점이 가구의 재밌는 점이자 숙명이다. 해서 가구는 디자이너에게 좋은 캔버스가 된다. 결국 디자인이냐 기능성이냐는 작가의 고민이라기보다 소비자의 선택 영역이다.

네덜란드에서의 유학 생활이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1993년 등장한 네덜란드 '드로그(Droog) 디자인' 그룹이 디자인 세계의 지형을 뒤흔들었다. 드로그란 '건조하다(Dry)'는 의미와 함께 아이러니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전까지 강제되었던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디자인을 밀어내고, 21세기 디자인 이슈를 모두 잡아먹었다. 당시 내가 다닌 대학의 학장이 드로그 디자인 그룹의 아트 디렉터여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물론 미적 감각을 우선하는 한국 교육과 달리 인본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고생이 적지 않았다.

of textile on top, and that the effect can be maximized with complementary colors. If you ask me why it had to be a chair, it is because the chair that can support a person's body weight is the basic of furniture, and is a piece of art that focuses on the material itself rather than its form.

Where do you make compromises when design collides with function? Basically, I believe that the only function of a furniture is to provide a sense of 'height.' Furniture decides the height where you sit, the height where you lay down, or the height where you hang your clothes. So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you can intervene. Ergonomics can be brought in to emphasize function, and then you can make artistic approaches. That is what makes furniture interesting, and is also furniture's destiny. Therefore, furniture becomes a good canvas for designers. In the end, what you choose between design and function is a decision made by consumers, not designers.

It seems that studying in the Netherlands had a great influence. DROOG DESIGN, a design group from the Netherlands that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로서 겪는 갈등이 있을 것도 같다. 아직 완성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디자인을 컨펌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한다. 또 평가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다. 출석이나 수업 태도에 더 점수를 매긴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예술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다. 따라서 미적 평가를 최소화한다. 1, 2학년 때는 '2시간 만에 의자 만들기' 등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시킨다. 1년 동안 의자 15개를 만들면, 직관적으로 스케치만 봐도 어느 부분에 하자가 생키리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직관을 키워주고 3, 4학년 때는 논리와 개념, 관점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 RNJ 테이블을 선보였다. 낯설게 보이기 혹은 본질에 대한 탐구인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갈증의 발현이었다. 예를 들어 '파슨스 테이블'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클래식 디자인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 클래식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의문을 품자고 생각했다. 구조적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테이블의 다리가 꼭 4개이고, 사각 상판의 모서리에 수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다. 테이블 어디를 눌러도 넘어지지 않을

emerged in 1993, shook the world of design. Droog means 'to dry', and is an irony as it wiped away the previous trends in design with visual effects, and devoured all the design issues of the 21st century. I acquired a significant lesson from the dean of my school who was also the art director of the DROOG DESIGN GROUP. Of course, I encountered difficulties because its educational principles emphasized the humanitarian perspective, compared to the Korean education that mainly focused on the sense of aesthetics.

Do you deal with any conflicts as a professor because you were exposed to a different kind of education? I don't have a complete philosophy yet, but my principle is that I never confirm the students' designs. I also try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evaluation in their works as much as possible. I give more points for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Basically, I am not sure whether you can teach art through education. That is why I minimize artistic evaluation.

The design finished with Giwa, which are roofing tiles used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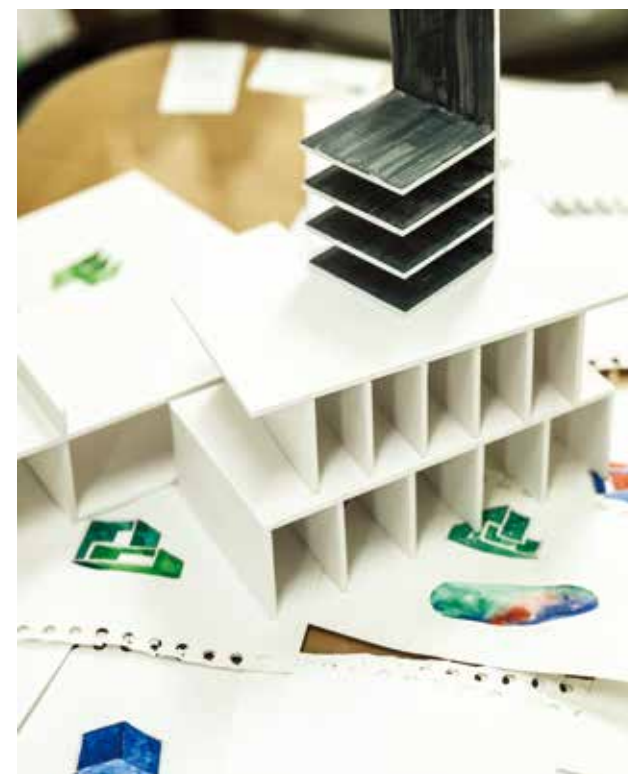
수 있다면, 한쪽 모서리에서 전체 다리가 시작돼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R.N.I 테이블이다.

‘기와’를 가구에 활용한 디자인은 어떤 담장을 연상시켜서 상당한 즐거움을 준다. 기와는 네덜란드 유학을 할 때 ‘조형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는 고민을 하면서 ‘소재가 내 것이 되고, 소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조형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선택할 수 있었던 소재다. 만약 유학 이전이었다면 멋진 형태를 스케치로 만들고, 무의미하게 나무를 깎았을 것이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전공인 ‘콘셉추얼 디자인 인 콘텍스트(Conceptual Design in Context)’였는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점을 가진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갈증이 해소된 셈이다. 물론 아직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아 감성적 조형과 논리적 접근, 이 둘을 어떻게 믹스하고 발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완벽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이었다면 한옥이나 단청, 오방색 같은 소재를 상업적으로 변질된 금기어짐으로 인식했겠지만, 그런 식상함을 대하는 관점을 달리해서 얻은 소재가 기와다. 기와는 포기하고 도전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애증의 대상이다. 처음엔 목공 기계로 기와를 깎을 정도로 미숙했지만, 설계를 만들어 기계를 주문할 정도로 집착했다. 번외장이 “너구리 가마에서 구운 기와는 색이 모두 달라 구색을 갖춰놓으면 보기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기와는 그 색이 각기 다른 아름다운 소재다. 다만 작업 과정이 너무 힘들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지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는 가공을 절제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최초로 건축물의 외장재인 ‘기와’를 공간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점은 획기적이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획기적 사건’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무아레 작품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획기적인 사건보다는 지인들로부터 교수하면서도 꾸준히 작업하는 사람이란 소릴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 S

the exterior of buildings, reminds you of roofing tile walls and is very pleasing to look at. I was able to choose Giwa as a material because I concluded, “The outcome of art is changed when the material becomes mine, and my view of the material changes,” upon contemplating ‘how form is created’ while studying in the Netherlands. If I realized it before, then I would have created gorgeous form by sketching and carving wood meaninglessly. My previous thirst was quenched while I was studying design in the social context. Of course, I am not experienced enough to perfectly organize my thoughts on how to mix and realize sensible forms and logical approaches. Before, I would have considered materials, such as Korean houses, Dancheong, and the Five Directional Colors, as taboos that have been commercially deteriorated, and the consequence of changing my perspective toward banality was the roofing tiles. The roofing tiles are materials of love and hate that nearly forced me to give up on the challenge several times. I was so unskillful at first that I carved the tiles using carpentry machines, but I was obsessed enough to design and order my own machine. A roofing tile master said, “The roofing tiles baked in the raccoon kiln came out with distinct colors, and looked beautiful when arranged,” on describing the beautiful colors of the roofing tiles.

It was innovative that you brought ‘Giwa,’ an exterior material, into the interior space for the first time. With that experience, aren’t you dreaming of another ‘innovative project’? For now, I am focusing on Moire. Working with the roofing tiles is hard, and preference is polarized, but Moire can be mass-produced. I just want to hear my acquaintances say, “You never stop working, even as a professor.”



곽철안 작가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높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 가구는 디자이너에게 아주 좋은 캔버스”라고 말한다.



고즈넉한 정취에 물든 하룻밤

Andong

안 동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은 도시 안동.
 그곳에 400년의 시간을 이어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공존이 아름다운 전통 리조트 구름에가 자리해 있다.
 휴식과 풍류,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품은 이곳은
 이름처럼 구름도 기꺼이 머물다 갈 듯하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전통 리조트 구름에

칠곡고객의 —자형 사랑채는
 사랑방과 대청마루, 욕실이
 이어져 있다. 손님을 맞이하던
 사랑채의 성격상 미닫이문을
 열면 전망이 뛰어나다.



1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전통 리조트 구름에 전경.
 2 감동재사의 대청마루.
 3 안동의 장인이 만든 이부자리는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한다.



안동 시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숲속,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7채의 고택이 뿜어내는 고고한 자태와 주위의 풍경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가 되는 곳. 바로 '전통 리조트 구름'이다. 사회적 기업 행복전통마을이 운영하는 구름에는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문을 열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담은 고택을 현대인들이 아끼고 찾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은 고택을 다시 집으로 되살리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택 여러 채가 모여 마을처럼 군락을 이룬 곳, 주변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풍경이 되는 곳을 후보지로 찾던 중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했던 10여 채의 고택들이 이전되어 안동 민속전시관의 부속 전시관으로 쓰이던 장소를 만나게 되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잊힐 위기에 처한 안동의 유서 깊은 고택 7채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의 편의성을 더해 총 12개 객실로 다시 태어나 여행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통이 살아 있는 오래된 미래를 만나자'라는 콘셉트를 가진 구름에는 구시대 유물이 아닌 살아 있는 전통으로 존재하고 오늘과 소통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오래된 한옥의 골조와 풍취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실

In a quiet forest that is not very far from downtown Andong, there are seven traditional houses nestled on a shallow hill, creating a picturesque view with a surrounding landscape. This place is called 'Gureume,' a traditional resort. Inspired by the question, "Couldn't we make the traditional houses with the lifestyles and culture of Korean ancestors a place that is valued and frequented by people in the modern era?", they decided to turn old houses into new 'houses.' They looked for a village with several traditional houses surrounded by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discovered about 10 traditional houses that were almost submerged underwater in 1976 amid the construction of Andong Dam, which was used as an annex to the Andong Folk Museum. The seven historic old houses of Andong, however, were so poorly managed that they were almost forgotten. Now they have been transformed into 12 guest rooms with the convenience of a modern lifestyle added to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greeting the travelers.

내 냉난방 시설, 현대적인 욕실과 화장실, 보안과 방한을 위한 유리문, 벽과 가벽 사이의 간접조명 등을 고택 안으로 감쪽같이 숨겼다. 또 담백한 디자인의 서안과 소반,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제철 생화가 담긴 화병, 안동의 장인이 만든 이부자리와 방석 등으로 공간을 채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안락한 시설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느끼며 그저 편안하고 느긋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구름에는 가깝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의 역사를 가진 2채의 대가(大家)와 2채의 재사(齎舍), 3채의 정자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자, -자 등 저마다 형태와 규모도 다르고, 각각의 고택이 가진 매력도 다르다. 구름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계남고택(1800년대 건축 추정)은 퇴계 이황(李滉)의 8대손 이귀용(李龜用)이 마을에 터를 잡고 지은 종가로 -자 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택으로 총 3개 객실이 있어 단체가 머물기도 좋다. 칠곡고택(1831년 건축) 또한 전형적인 -자 구조의 양반집으로 퇴계 선생 10대손인 이휘면(池岬 伊萬顯의 부)의 고택이다. 재사는 조선 시대 가문의 시조나 유력한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한 건물을 말하는데, 주로 안동을

The framework and ambiance of old Korean houses have been preserved, while the indoor cooling and heating systems, modern bathrooms and toilets, glass doors for security and heating, and indirect lighting between walls and partitions are completely hidden. The simply designed Seoan and Soban, the vases with the right flowers for each season, and the sheets and cushions made by a master of Andong fill the space to demonstrate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For breakfast, they serve Andong's local, homemade food or native delicacies. You can enjoy dedicated services in a cozy setting, and experience endless comfort and calm. Gureume is composed of two Daega houses, two Jaesa houses, and three Jeongja houses that are 200 to 400 years old. Each house has a unique shape, scale, and charm. As you enter Gureume, you will come across Gyeonam Gotaek (built around the 1800s), which is the main house of the family that was built in the shape of a square by Yi Gwi Yong, an 8th-generation



전통 리조트 구름에
찾아가는 길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90
문의 054-823-9001
승용차 * 서울(중앙고속도로) → 서안동C
→ 송현오거리 → 옥동 → 강변도로 →
법흥육거리 → 영락교 → 안동민속박물관
→ 전통 리조트 구름에
* 서울(중부내륙고속도로) → 신갈JC →
여주JC → 점촌C → 예천 → 안동 송현
오거리 → 옥동 → 강변도로 → 안동민속
박물관 → 전통 리조트 구름에



중심으로 경북부에 분포했다. 재사 용도로 사용됐던 고택인 팔회당재사와 감동재사는 대가에 비해 마당이 좁아 아늑한 느낌을 주며, 방 안에 다락방이 있거나, 좁은 통로를 따라 또 하나의 방이 나오는 등 남다른 매력이 녹아 있다. 박산정(1600년대 초 건축)은 조선 선조 때 공초 참의를 지낸 이지李暹가 학문 수양을 위해 건립한 정자이다. 언덕 맨 위에 위치해 구름에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청웅정(1700년대 건축 추정)은 감동재사 경내에 건립되어 강당講堂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서운정(1800년대 건축)은 퇴계 선생 9대손 이언순이 말년에 지은 정자로 계남고택과 인접해 있다. 다른 고택과 달리 노출 목조가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객실 외에도 손님을 맞고 배웅하는 까치구멍집이 있고, 길을 사이에 두고 구름에와 나란히 자리 잡은 신축 한옥 단지에는 한옥 레스토랑과 한옥 카페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풍류, 구름에 든 것처럼 편안한 잠자리, 대화와 체험이 가져다준 가족 또는 지인과의 소통 등 구름에에서의 하룻밤은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한다. 혹은 마음의 풍경도 달라졌으리라. S

descendant of Toegye Yi Hwang, when he settled in the village. Chilgok Gotaek (built in 1831) is also a typical, square-shaped noble house built by Yi Hwi Myeon (father of Chiam Yi Man Hyeon), a 10th-generation descendant of Sir Toegye. Palhoedang Jaesa and Gamdong Jaesa were ritual houses. They have smaller yards than the Daega houses, and they are cozy. Their unique charms include the attics in the rooms and extra rooms at the end of narrow passages. Seounjeong (built in the 1800s) is a pavilion built by Yi Eon Soon, the 9th-generation descendant of Sir Toegye, and is situated close to Gyenam Gotaek. It is popular among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because it has an exposed tub, unlike other old houses. Enjoy the serene setting along with nature as the cozy bedding that makes you feel you are floating in the cloud while spending time with family or friends. A stay at Gureume presents a view that is different from what you saw yesterday. It would also change the view of your heart.

1 구름에의 공간 곳곳에는 제철 생화가 놓여 공간의 운치를 더한다. 2 대가에 비해 마당이 좁아 아늑한 느낌을 주는 감동재사. 3 청웅정의 대청마루에서는 돌담을 바라보며 차 한잔 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4 문창살과 노출 목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운정의 욕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감의 美를 나누다 Sharing the beauty of empathy with different cultures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향기처럼 광활한 미국 전역을 서서히 물들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셔티스톡





동부에서 서부로, 미국 전역에 설화수의 향기를 전하다

2010년 미국 동부 뉴욕, 전통의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는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백화점에 1호점을 오픈하며 화려하게 데뷔,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설화수는 단순히 외형의 칭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 어떤 브랜드도 흉내 낼 수 없는 내실의 견고함으로 모두를 감탄케 했던 것. 실제 제품을 사용해본 에디터는 물론 유명 뷰티 스페셜리스트들로부터 찬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중 자음생크림은 뉴욕에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며 'BG Best Pick'으로 선정될 만큼 뉴욕을 사로잡았다. 이에 힘을 얻어 시카고, 볼티모어 그리고 미국 서부까지 설화수의 향기가 퍼져 나가고 있다.

길게 뻗은 도로 사이 야자수가 푸른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양옆으로는 최고급 부티크 매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일 년 내내 화사한 햇살과 더불어 활기가 넘치는 곳, 캘리포니아를 걷고 있노라면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마음마저 금세 가뿐해지는 기분이다. 이러한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 모인 이들은 남다른 스킨케어와 패션 소품이 주는 묘미 또한 놓치지 않는다. 수백 개의 브랜드 스토어들이 저마다의 향기로 이들을 유혹하는데, 그중 설화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향기로 격이 다른 동양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하며 미국 서부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늘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삶 속에서도 잠시 쉬었다 가는 여유로움, 미국 서부의 진한 매력으로 어필된다.



The scent of Sulwhasoo has spread across the U.S., from the East Coast to the West Coast

Sulwhasoo attracted media attention in 2010, when it debuted with its first store at Bergdorf Goodman, a department store that cherishes the tradition of glamour in New York. However, it did not rest on the compliments it received during the launch. Its solid quality that no other brand can match has amazed everyone. Editors and famous beauty specialists have prais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s. Among them,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has won over many fans in New York, and was even named 'BG Best Pick'. Sulwhasoo's fragrance has spread to Chicago, Baltimore, and even the West Coast. Palm trees have diffused the energy of green life along the long-winding roads and the high-end boutiques on both sides. The streets in California are filled with bright sunshine and energy all year, instantly cheering up your stressed heart. Everyone who has gathered to experience this sunny paradise cannot miss out on the excitement of shopping. Hundreds of branded stores have seduced shoppers with their unique scents, and Sulwhasoo has stood out in the West Coast with Korea's leading fragrance and the peerless sentiments and sophisticated beauty of the East.



내 면에서 피어오르는 진정한 럭셔리, 설화수로 말하다

미국 서부 LA 지역 중에서도 최고의 중심 상권이라 불리는 웨스트필드 시티, 전 세계 브랜드들이 밀집해 있는 블루밍데일스 센추리 시티(Bloomington Century City) 백화점에서도 설화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감동의 전율마저 이는 이 매장은 지난 2월 오픈과 동시에 LA 뷰티 피플들의 SNS에 등장하며 주목받았다. 미국 내 여덟 번째 백화점 매장이기도 한 이곳은 남다른 제품과 인테리어로 설화수만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설화수의 보다 진보된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과 함께 누구와도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약 6평 정도의 공간에서는 한국 전통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원형 테스트 바를 중심으로 개방형 동선을 설계해 보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 년 내내 햇살이 좋은 만큼 자외선으로 인한 주름과 푸석한 피부 결이 가장 큰 고민이기에 설화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인한 솔루션을 제공, 한국의 위상과 더불어 브랜드 입지를 다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원료를 사용하며 브랜드만의 기술력을 더해 만든 제품들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모자람이 없다. 설화수는 앞으로도 내면의 저력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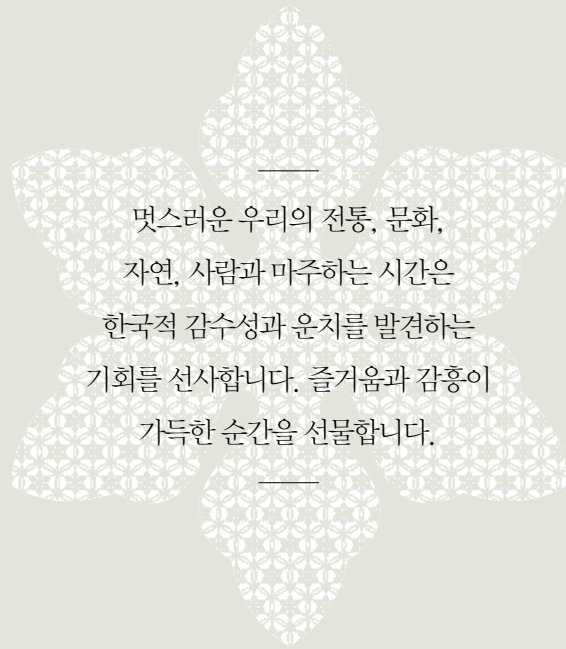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미국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Experiencing Sulwhasoo, the true essence of luxury that blooms from deep within

You can find Sulwhasoo at Bloomingdale's Century City in Westfield City, the largest commercial sphere in L.A. that features different brands from all over the world. Its impressive store has appeared on the SNS of beauty experts in L.A. since it opened last February. The eighth Sulwhasoo store in the U.S., it has been flaunting Sulwhasoo's charms with distinct products and interiors. Th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with Sulwhasoo's advanced technology, and are showcased in a cozy space where you can openly communicate with anyone, thus attracting many customers. This store is only about 20 m², but you can feel the traditional sentiments of Korea and try all the products comfortably in an open layout around the smoothly rounded tester bar. With the year-round bright sunshine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e main skin care concerns are related to wrinkles and skin roughness due to prolonged exposure to UV rays. Thus, Sulwhasoo has built its reputation on providing powerful solutions that were not offered before. Sulwhasoo uses the most trusted Korean ingredients through its original technology, and its products have impressed numerous consumers. Sulwhasoo will continue to share such unrivalled skin care benefits with the rest of the world.



블루밍데일스 센추리 시티(Bloomington Century City).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굳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설화수의 향기를 느끼며 힐링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노랫말의 힘
The power of lyrics that is neither too long nor too short

Kim Ea Na

김 이 나

김이나의 가사는 언제나 알맞다. 때로 무릎을 칠 정도로 반짝이고 때로 힘을 뺀 듯 덩덤하지만,
가사를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멜로디나 가수에게 더없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김이나의 힘이다.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며 곡을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가사의 조화를 찾는 것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감각은 그녀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글 김영우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김이나는 가요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사가이다. 아이유, 엑소부터 이선희, 이문세, 조용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뮤지션들과 작업하며 2003년 데뷔 이래 현재까지 무려 300여 곡 이상을 발표했다. 국내 작사가로는 이례적으로 '리릭(Lyric)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개척하기도 했다. 리릭 프로듀서는 가사를 통해 하나의 앨범에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가인의 EP 앨범 <Hawwah>가 그 예이다. 2015년에는 그녀의 작업을 정리해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을 선보여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TV와 라디오 등에서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녀의 이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언제나 살아 있는 날 선 감각이나 엄청난 작업량, 다양한 실험과 도전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장르와 세대에 맞게 가사를 만들어내는 폭넓은 공감 능력이야말로 작사가로서 김이나의 가치를 빛나게 한다.

“작업 스타일 자체에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해요. 곡을 쓴 의도와 편곡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를 부를 가수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상상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관찰하고 유형화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마다 미세하게 다른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죠. 캐릭터는 가수에게서, 감정은 곡으로부터, 주어진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요소에 맞게 가사를 씁니다. 가수의 콘셉트에 맞춰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려고도 하고요.”

김이나는 스스로를 아티스트보다는 스태프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을 고수하고 관찰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작곡가와 가수에게 맞춰나가는 작업을 추구한다. 문학적 접근보다는 음악적 접근으로, 가사의 완성도보다는 곡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녀가 가진 조화와 균형의 마인드는 최고의

Ea Na Kim is the most widely known lyricist in Korea. Having worked with musicians from various genres and age groups, from IU and EXO to Sun Hee Lee, Moon Se Lee, and Yong Pil Cho, she has released more than 300 songs since her debut in 2003. She even established the concept of 'Lyric producer.' A lyric producer creates a worldview for the entire album with lyrics for consistency of identity throughout the album. An example would be Gain's EP Album <Hawwah>. In 2015, she published a book titled, <Ea Na Kim's Lyric Writing>, which made it to the best-seller section. Recently, she has been actively featured on TV and radio shows as an entertainer. A unique sense in spotting trends, an enormous workload, broad-minded experiments, and openness to challenges are not the only factors that attract attention to her profile. Her true value is in her broad empathy to create lyrics for various genres and generations. "I try to write a story about a singer, not necessarily about myself. I imagine the ideas behind the song, the re-arrangement, and, above all, the character and worldview of the singer who would sing the song. I have always had the habit of observing and characterizing people and tried to discover what makes each one of them unique. The character comes from the singer, and the mood comes from the song, so I try to write the lyrics to match those given elements. I also try to find the words that are right for each singer's concept."

Kim thinks of herself as a staff, not as an artist. She tries to accommodate the desires of composers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때로 의미 없는 노랫말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은 단순히 상업 작사가의 숙명만으로 읽히지 않는다.

“혼자 하는 창작 작업이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창작 작업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지점에서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면 돼요. 혹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울리는 가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맞춰나가야 곡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제 작업도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사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가사가 ‘글이 아닌 소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가사는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중은 그것을 글이 아닌 소리로 듣는다. 소리로 접하는 글. 아무리 아름다운 가사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음악이 가진 패턴과 리듬, 흥과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말을 붙이는 것이 가사의 역할이다. 가장 좋은 가사는, 그래서 그 음악이 제일 좋게 들리도록 하는 가사인 것이다.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각을 유지하는 일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일상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김이나는 자극이나 일탈보다는 일상의 균형을 통해 안정을 추구한다. 일이 없을 때에도 언제나 작업실로 출근하고 계획된 일상과 안정된 공간을 즐긴다. 몸과 마음이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때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제게는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상존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반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데, 무디다기보다는 훌훌 잘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아요. 제 영역이 공

and singer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be stubborn with her ideas. She focuses on the musical approach rather than the literary approach, and on the completion of entire songs rather than the completion of lyrics. Her mindset on harmony and balance are her greatest strengths. Her philosophy on writing meaningless lyrics is not a reflection of her fate as a commercial lyricist.

“I am all alone when I work, so I often get stubborn. But there is no right or wrong when it comes to creative work. All I have to do is to create a story that I want to tell while satisfying all the given conditions. Sometimes, I meet a singer who is just right to tell the story I have always wanted to tell. The songs become more flawlessly complete when I maintain balance, and that is when my work becomes meaningful.”

For those who engage in creative work, it is absolutely important to stay abreast with the trends. Some people travel, while others amplify their everyday lives to do so. However, Kim pursues stability through balance, rather than stimulation or deviation. She always comes to the studio even when there is no work to do, a testament to her enjoyment of an organized life and a stable space. She can thoroughly focus on herself when her body and mind are stable and balanced.

“I have two contrasting characteristics. I am very positive and hardly stressed on one hand, but I am physically very sensitive on the other hand. I am rarely stressed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am not very insensitive, but I tend to get over things quite easily. I don't deal with mood





고한 편이고 그 안에서 집중을 잘하는 편이죠. 반면 신체적으로는 바르는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먹기만 해도 트러블이 심하고 한 끼만 걸러도 쉽게 살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과일과 단백질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죠. 화장품도 늘 쓰는 것만 쓰고요. 피부 열이 높아서 항상 진정을 시켜야 하는 제게 설화수 소선편크림은 절대적인 뷰티 아이템이에요.”

설화수 예찬론자인 김이나는 설화수를 철학이 있는 브랜드로 평가한다. 다양한 요소를 가미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가치를 유지하는 브랜드. 시즌마다 요란스러운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고요하지만 안정되게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모습에 더없이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설화수는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늘 알맞은 느낌을 받아요. 기능성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도요. 대상이 원하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과 조화로움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학도 저와 비슷한 브랜드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김이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심히 쓰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아름다운 곡에 어울리는 최적의 가사를 생산해낼 것이고, 마음에 감기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곡의 작사를 확인하고는 또 한 번 웃음 지을 것이다.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균형 잡힌 가사의 힘에 고개 끄덕이면서. S

swings often. I know my ground, and I focus within my perimeter. Physically, however, I am very trouble-prone when I eat something wrong, and lose weight and strength when I skip a meal. So I try to eat a lot of fruit and protein, and drink plenty of water. I almost never change the cosmetic products I use. Sulwhasoo Renodigm EX Dual Care Cream is an absolute beauty regimen, as my skin temperature is always high and must be soothed.”

As a Sulwhasoo enthusiast, Kim says it is a brand with a philosophy; a brand that constantly upholds its value without unnecessary greed even though it has product lines containing different elements. She thinks it has more credibility because the brand calmly and stably maintains its confidence without any drumbeating marketing schemes every season.

“For customers, Sulwhasoo is always in the right amount, without having too much or too less,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value. Its right mix of balance and harmony are its greatest value, and this makes Sulwhasoo’s philosophy similar to mine.”

Kim said among her plans for the future is to ‘write with all her heart.’ She will create the most appropriate lyrics for beautiful songs, and we will smile when we listen to a song that touches our hearts and find out who wrote it, alluding to the power of lyrics that are balanced, without being too long or too short.

메이크업 김수빈(우현중 메르시) 헤어 이수지, 장유진(차홍아르더)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RS9(02-792-8802), 오브제(02-3444-1737), 딘트(02-3442-0220), 지니킴(02-1644-8448)

난의 향기와 자태로 공간의 품격을 높인다

비람결에 실려 온 부드러운 꽃향기에 부산했던 마음을 잠시 한쪽에 두고 향기가 피어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우아한 자태와 그윽한 난향으로 채워진 공간에는 소담한 봄 햇살이 드리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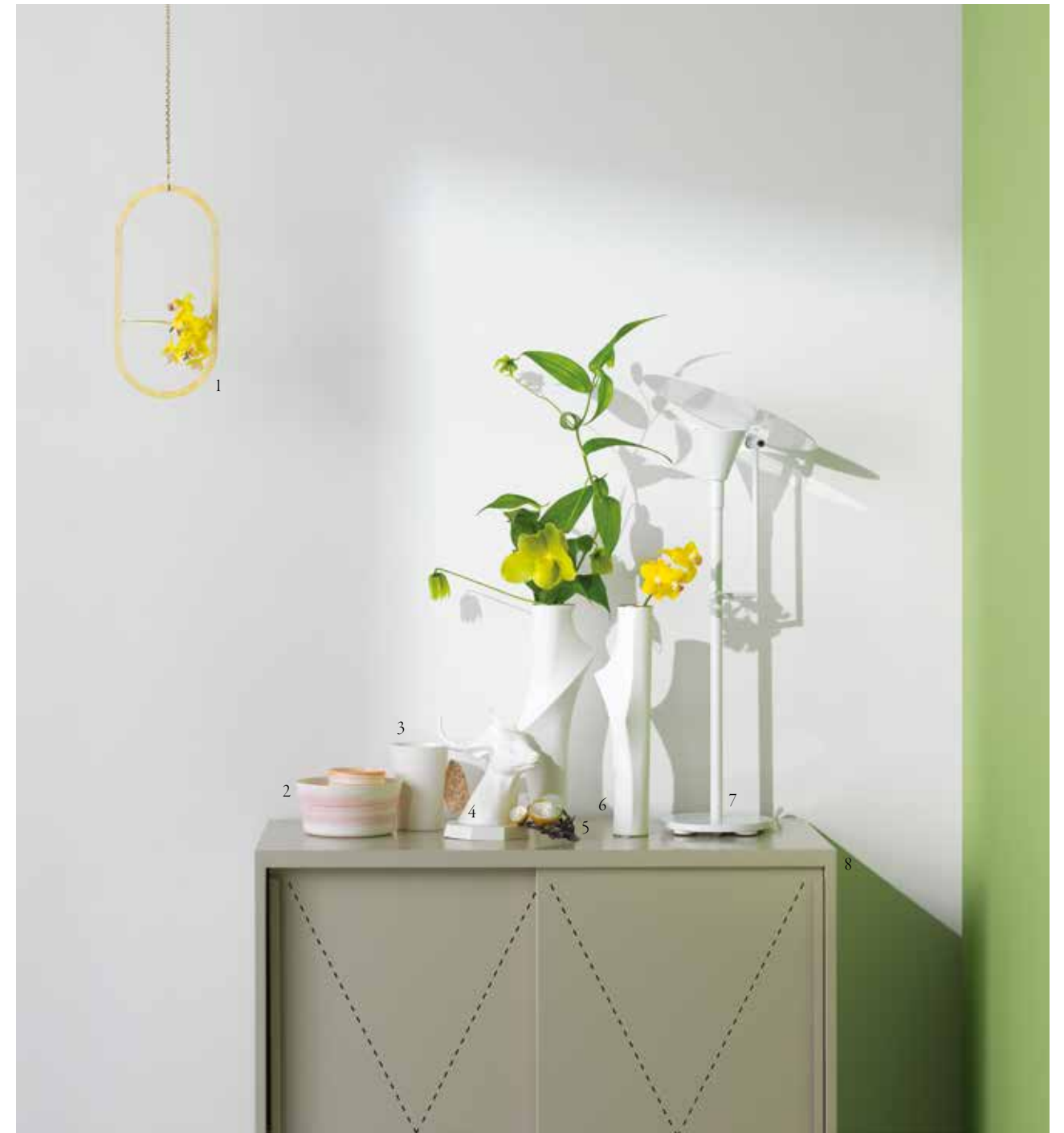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플로리스트 김정민(도로스 아벡스 서울)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Flower 노란 빛깔 소담한 크기의
호접난인 타이페이 골드와 덴파레를 함께
풍성하게 꽃아 장식 1 한지를 접어 만든 조명
갓은 YUBLIFE by 유보영 작가. 2 백자 라운드
접시는 크래프트팩토리 by 에이컬러스. 3 백자
나팔 잔은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아트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 4 도자 라운드 트레이는
청송백자. 5 화이트 잔은 정지영 작가 by 텀덤
6.오크 연핑크 스키투트 চে어는 가리모쿠 by
리모드. 7 머스터드 컬러의 চে어는 HAY by
라콜렉트. 8 그린 유리 베이스는 by 하우스
라벨. 9 에스닉 화병은 하우스닥터 by 에이
컬러스. 10 골드 스트라이프 베이스는 by
하우스라벨. 11 민트 색 베이스는 by 하우스
라벨. 12 도자 원형 화병은 김연지 작가 by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13 가르티오 피쳐와 텀블러는 이딸라.
14 화이트 চে어는 HAY by 아텀.

* 화이트와 그린 옐로 포인트는 DEW383 by 던에드워드 협찬

왼쪽 페이지 Flower 서양난의 일종인 그린 신비디움과 그린 소재인 코렐편(고사리)을 사용해 넓게 퍼지는 와이드 스타일로 장식. 1 Flower 시리즈 판화는 abc갤러리, 2 골드 보디 플로어 조명은 와츠, 3 패브릭 RO 체어는 FRITZ HANSEN by 보에, 4 옷칠 사이드 테이블은 김옥 작가 작품, 5 옐로 유리 오브제는 양유완 작가 by 모모와니, 6 아코디언 구조의 크래프트지 테이블은 IHPAPER, 7 적동에 옷칠 코팅 화병은 김유정 작가 작품, 8 사각 도자기 화병은 이정은 작가 by 로알 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1 오벌 골드 플랜트 모빌은 Small good things, 2 마블링 컵과 핑크 실린더는 이인화 작가 by LVS CRAFT, 3 독창적인 롱 머그컵은 양지운 작가 작품, 4 세라믹 소재 아피스 오브제는 박고운 작가 작품, 5 코튼자와 금박 은 소재 브로치는 이영주 작가 작품, 6 황동과 수축 튜브 소재로 제작한 화병은 황미희 작가 작품, 7 화이트 데스크 램프는 김대건 작가 by 갤러리로알, 8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베이지색 멀티 수납장은 더뎁팩토리.



청초한 난, 가녀린 듯 강인한 향기로 채우다

마치 어여쁜 한 마리의 나비가 고운 날개를 펴고 하늘 위로 날아오를 것처럼 느껴진다. 단 한 송이뿐일지라도 기품이 넘쳐흐르는 파피오 난과 타이페이 골드 난으로 공간은 더욱 품위 있어진다. 난은 꽃이 피어날 때도 그렇지만 질 때도 역시 우아하기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서로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를 만끽하다

재스민 향이 강하게 피어오르는 그린 카틀레야에메랄드, 화사하게 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열사,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피오까지 개화의 시간이 긴 만큼 오래 곁에 두고 즐겨볼 수 있는 서양난.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왼쪽 페이지 1 골드와 로즈 골드 사이드 테이블은 모두 리창 by 윤희현즈, 2 뉴트럴 투톤 도자기 잔은 장미네 작가 작품.
 3 도자 라운드 플레이트는 김남희 작가 작품, 4 세라믹 커피 드리퍼는 화소반 by 윤희현즈, 5 도자기 머그잔은 지승민 작가 작품.
 6 곡선감이 돋보이는 유리 베이스는 하우스닥터 by 에잇컬러스, 7 구 형태의 유리 오브제는 양유완 작가 작품. **오른쪽 페이지**
Flower 볼륨감 있는 사이즈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름다운 호접난으로 장식, 1 플래닛 간접조명은 김규 작가 by 밀플라토.
 2 도자 사과 오브제는 김규태 작가 by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3 꽃잎이 아른거리는 느낌을 표현한 콘솔은 김상윤
 작가 by 리스커뮤니케이션, 4 빈티지 로즈 핑크 커튼은 by 이혜베뜨, 5 자개 소재의 테이블과 트레이, 코스터는 모두 네이커플러스
 by 픽트스튜디오, 6 분청 다관은 윤세호 작가 by 에리어플러스, 7 자기도 커피잔은 양지운 작가 by KODF 갤러리, 8 도자기 스푼은
 에리어플러스 소장품, 9 오렌지 패브릭 라운지체어는 가리모쿠 by 리모드, 10 컬러 배색된 패턴의 사각 쿠션은 by 키티버니모니.



도시 안에서 365일 푸르른 청명함을 만끽하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창경궁을 건다 마주친 유리 온실을 보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작은 공간 안에서 식물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 봄날의 온실 나들이와 사랑에 빠진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권수현

유리 안에서 피어나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100년이 넘었기에 낡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그 안에 들어서 잔뜩 움츠렸던 어깨에 힘을 빼고 닫혀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1909년에 만들어진 철골 구조와 유리, 목재가 혼합된 국내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의 대온실, 식막한 도시 안에서 365일 푸르름을 간직한 마음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화사하고도 고즈넉한 온실 풍경 溫室風景

온실 안 따뜻한 기운은 기운까지 북돋아준다. 정성 어린 손길로 일 년 내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온실 안 꽃과 식물들. 아직은 이르지만 여름의 강인한 초록을 미리 느낄 수 있다. 온실 안 화사한 꽃과 열매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빛과 생기를 담은 봄의 선율을 선물하다

밝은 안색을 만드는 비법으로 선택된 백목련 추출물은 기미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며 얼굴색은 물론 매끈함까지 감동케 한다. 빛을 받으면 더 밝은 빛이 나는 비결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귀하게 쓰인 보석의 원료로 피부를 한 톤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는 효과를 가진 진주모 콤플렉스 때문이다.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50+/PA+++.

입술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며 얼굴은 활짝 핀 매화꽃처럼 더욱 건강해 보인다. 2017년 3월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 에센셜 립세럼 스틱에는 틴티드 성분이 함유되어 더욱 생기 넘치는 색감을 입술에 전달한다. 풍부한 세럼 텍스처 고농축보습으로 유·수분을 동시에 채워준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 6호 스위트 핑크,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푸른 봄 채소 먹고 힘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설레기까지 한다. 어쩔 그리도 색깔조차 맛있어 보이는지, 입맛 살려주는 봄 채소들이 시장에, 그리고 마트에 한가득이다. 향에서부터 맛이 느껴지는 쫄면이요 냉이, 달래, 돌나물, 미나리, 방풍나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봄, 나른함을 떨쳐버릴 씩씩해진 맛이 살아 있는 봄 채소와 더불어 2017년, 진짜 시작이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아이와 함께 먹어요
냉이와 두릅
튀김

재료

냉이, 두릅, 찹쌀가루, 소금, 식용유

만드는 법

1 냉이와 두릅 적당량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잘 털어낸다. 2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준 후, 물기를 털어낸 냉이와 두릅에 골고루 묻혀준다. 3 반죽을 묻힌 냉이와 두릅에 마른 찹쌀가루를 한 번 더 묻힌다. 색도 더 고와지고 맛 또한 풍성해진다. 4 170도 정도의 기름에 튀겨낸 후,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뿌려준다.



반찬으로도 손색없어요
매콤달콤한 봄 채소
무침

재료

봄동, 돌나물, 달래, 참기름, 고춧가루, 소금, 설탕, 식초

만드는 법

1 먹기 좋은 크기로 봄동, 돌나물, 달래 등을 썰어 볼에 담아둔다. 2 1의 볼에 참기름을 넣고 살살 문혀준다. 코팅 효과와 더불어 양념장을 문혔을 때 숨이 죽는 것을 방지한다.
3 고춧가루, 소금, 설탕, 식초로 만든 양념장을 넣어 주무르지 말고 살살 비비듯 무친다.



시트러스 과일과 가벼운 다이어트
향기 가득한 그린
샐러드

재료

봄동, 돌나물, 달래, 꿀,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화이트 와인 비니거

만드는 법

1 먹기 좋은 크기로 봄동, 돌나물, 달래 등을 썰다. 2 꿀, 오렌지, 한라봉 등 집에 있는 시트러스 과일을 넣어 식감을 더욱 살려준다. 3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화이트 와인 비니거를 함께 섞어 만든 소스를 부어준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이 소위 맛 칼럼리스트로서 쓴 음식 품평 책인 〈도문대작〉에 방풍나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허균이 강릉에서 먹었다는 방풍의 잎으로 끓인 방풍나물 죽은 그 향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흘이 지나서도

입안에서 방풍의 향이 가시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방풍나물은 해풍을 맞고 자란 것이 향과 맛이 더 좋아

지금도 제주도나 여수 등 해안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태안반도에서 많이 생산된다.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해요

영양 풍부한 방풍나물

죽

재료

방풍나물, 불린 멥쌀, 해감한 모시조개, 소금

만드는 법

- 1 불려놓은 멥쌀을 볶다가 조개 국물을 넣고 밥알이 퍼져서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끓여준다.
- 2 깨끗이 씻은 방풍나물을 썬 다음 1의 불에 넣는다. 이때 방풍나물은 살짝 데쳐서 넣어도 좋다.
- 3 맨 마지막에 삶아놓은 모시조개를 넣고 끓여준다. 조개는 미리 넣으면 질겨지므로 주의한다.
- 4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간장 등으로 간을 한다.

오래된 것에 경이로운 디자인을 입히다

London & Busan

런던 & 부산



이름만으로도 낭만적이고 세련됐으며 아름답기까지 한 도시가 있다. 드넓은 바다와 땅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런던과 부산은 오래된 공간이 주는 색다른 묘미에 각자의 색깔과 감성을 담아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서터스톡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뽐고 있는 내부에 못지 않고 새로 옮긴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 외부의 형세 또한 압권이다. 거대한 오두막 형태의 지붕은 하늘 위에서 보면 마치 새 한마리를 보는 듯하다.

세계를 휘어잡는 디자인 페스티벌을 비롯, 아트 산업의 중심지로 언제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런던. 명불허전이란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예술에 대한 열정은 항상 뜨겁게 불타오른다. 상생과 소멸의 법칙에 따라 시간 속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시간에 역행하며 또는 순환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오래된 장소에 대한 그들만의 감각적인 재활용법에 감동은 배가된다. 시간의 썩어 썩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과 그에 따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런던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방치되며 흉물과도 같았던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멋진 리사이클링, 1989년 템스 강변 허물기 일보 직전의 바나나 공장을 개조해 만든 디자인 뮤지엄까지. 낡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허물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움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디자인 뮤지엄은 바나나 공장을 떠나 이전하는데 이번 역시 휘황찬란한 새 장소가 아닌 1960년대의 역사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11월에 재오픈했다. 디자인에 목마른 전 세계 많은 이들, 그리고 365일 핫한 런던너들로 넘치는 이곳, 일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오로지 디자인 전시만을 위한 영국 최초의 전시장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테렌스 콘란, 톰 디크스, 노먼 포스터 등 굵직한 디자이너를 배출한 디자인 강국 영국의 면모를 볼 수 있다.

London is always full of pride with its world-class design festivals, and it is a center of the art industry. Their smart renovation of old venues enhances the impression, as a few, storied properties seemed to have disappeared in history along the laws of coexistence and extinction. Isn't London special because of its ceaseless examination of locales with a unique ambience created by the rings of time and the innovative ideas that inspired them? The beautiful recycling of the Tate Modern has included renovating an old, abandoned bank-side power generation plant, and the Design Museum was relocated from a banana factory that was almost demolished by the Thames River in 1989. They did not demolish those structures just because they were old, but rediscovered them and infused newness within them. The Design Museum was moved from the banana factory, and though the new venue was not a glamorous, new structure, it was a remodeled, historical landmark from the 1960s. It was reopened in November 2016. Many people yearning for design would have to visit this site, which is filled with warm Londoners 24/7,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s.



천장이 높은 공장 구조와 그에 따른 구조물의 원형들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 작품들과 어우러지며 더욱 독특한 오리를 생성한다.

이러한 런던이 부럽지 않은 곳, 대한민국에는 부산이 있다. 새로운 아트와 문화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은 단순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각의 도시인 것이다. '부산'이라는 두 글자를 걸고 시작된 영화제, 아트 페어, 디자인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들이 도시 이곳저곳에서 화려한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뒤덮고 있지만 수출입이 용이한 해안가에 위치, 지리적 환경과 그에 따른 공업 시설들로 크고 넓은 공장 부지들이 포진해 있는데,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963년부터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하던 고려제강 수영공장이 복합 문화공간인 'F1963'으로 탄생하였다. 폐산업시설로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어찌면 시간의 모래성에 묻힐 뻔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전시와 공연은 물론 교육, 상업, 휴식 공간의 글로벌 스페이스로 만들어진 것. 2016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처음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부산을 찾는 새로운 이유로 떠올랐다. 올해 3월 중교 서점을 시작으로 도서관과 추가 상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 때문에 조만간 부산으로 가는 기차 티켓을 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적인 예감이 든다. S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시나 공연 외에도 독특한 분위기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등 상업 공간 또한 공장의 분위기와 함께 더욱 발길을 끈다.



Busan is not just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but it is also the city that leads the artistic sensibility of Korea. The high-rise buildings built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are covering the skyline, but, unlike Seoul, it also has many vast factory sites occupied by industrial facilities, as it is geographically located by the sea for easy handling of imports and exports. This makes Busan an attractive proposition. The Suyeong factory of KISWIRE Co., Ltd. that has been manufacturing wires for 45 years since 1963 has been reborn as 'F1963,' a new cultural complex. It may have been buried in the sand castle of time as an abandoned industrial facility or a massive lump of steel, but it has been recreated into a global space of socio-cultural value and function for exhibitions, performances, education, commerce, and relaxation. First established as an exhibition hall for the Busan Biennale in 2016, it has become a new reason to visit Busan, attracting the world's spotlight. As a library with a used bookstore and additional commercial facilities opening here in March, many people are urged to buy train tickets to Busan soon.

미백에 관한 가장 눈부신 지혜, 자정

끊임없이 불어오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한 빛을 발하는 백삼을 담았다.
그동안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진정한 미백으로의 바람은 이제 자정라인과 함께 실현되며 절정의 광채를 선사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전통기법인 금태칠과 전통 소재인 자개의 오색영롱한 빛을 담았다. 김현주 작가의 'Remember' 함

자 정 수 Snowise Brightening Water

기본이 튼실해야 효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법. 기본과 효능에 충실한 에센셜 젤 타입 토너가 빠른 흡수력으로 미백 성분이 깊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ow to Use** 아침과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자 정 유 액 Snowise Brightening Emulsion

미백 비탕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촉촉한 로션 타입 에멀션으로 가볍게 피부 위로 퍼져 피부를 유연하게 케어해준다. 끈적임 없는 마무리 또한 일품이다. **How to Use** 아침과 저녁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펴 바른다.



자개를 한 뭉 한 뭉 곱어 붙이는 기법으로 만든 함에서 수공의 절정이 느껴진다. 김현주 작가의 타임캡슐 작품.

자정미백에센스
Snowise Brightening Serum

바르고 잔 후, 아침에 일어나면 한층 환해진 피부 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풍부한 함유성을 자랑하는 젤 세럼 타입으로 수분감이 시원하게 퍼지며 피부 곳곳에 유효 성분을 고루 전달한다. **How to Use** 아침과 저녁 자정수(토너)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펴평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자개만을 골라 붙여 만든 함은
김현주 작가 작품.

자정미백마스크
Snowise Brightening Mask

백삼 성분을 2주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 마스크로 피부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즉각적으로 맑아진 안색과 탱탱하게 올라붙은 피부를 느낄 수 있다. **How to Use** 주 2회, 자정수 사용 후 마스크를 부착하고 20분 후 떼어낸다. 피부를 가볍게 두드려 남아 있는 내용물을 흡수시켜준다.



빛을 받으면 자개의 찬란함이
공간을 더욱 화사롭게 만든다.
김현주 작가의 오일 램프
by 이도.

상백 크림
Snowise Brightening UV Protector

피부 부담감을 줄이고 촉촉함을 선사하는 안티폴루션 미백 선크림으로 미백의 효능은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제품이다. 소프트한 크림 타입 텍스처가 피부에 이끼리듯 밀착되어 매끄럽게 발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 No.1 소프트 글로우와 즉각적인 톤업 효과를 돕는 No.2 소프트 피치 2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How to Use**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적당량을 덜어 피부 결 따라 부드럽게 바른다.



바다의 빛을 머금은 자개가
금속에 스미며 유연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불은 김현주 작가 작품.

자정라인 전 세계적으로 수백 종류의 미백 화장품들이 여인들의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 톤과 결을 케어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지만 한순간에 불타올랐다 금세 시들해지는 효능으로 미백의 꿈을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에 설화수 자정라인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인고의 노력과 연구 결과 '백삼'이라는 아시아의 보물 속에서 해답을 찾아, 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효능을 자정라인 안에 담아낸 것이다. 피부 속을 탄탄하게 채우고 멜라닌을 케어해 설화수 자정라인만의 독보적인 미백 케어를 실현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여지는 색감에만 치중했던 단순한 미백은 잊고 피부 톤과 질감을 함께 다스려 투명하고 윤기 넘치는 미백, 자정라인과 함께 실현할 때다. S

Snowise Brightening Line There are hundreds of brightening products around the world aimed at refining women's rough, dull skin, but women have almost given up on their dream of achieving lighter skin because the brightening effects did not last long. The Sulwhasoo Snowise Line, however, has found a solution to counter the root cause. After years of research, a solution in the form of the Asian treasure called 'White Ginseng' has been formulated to enhance the Snowise Line's powerful and long-lasting benefits. It firms up and replenishes the skin, and removes melanin to reveal the unmatched brightening care of the Sulwhasoo Snowise Line. Forget about simple brightening that solely focused on the visible tone, and refine skin tone and texture to obtain skin brightening care that is full of transparency and radiance with the Snowise Line.



자음수 랜턴컬렉션 125ml / 5만7000원대, 자음유액 랜턴컬렉션 125ml / 6만3000원대, (3월 중순 출시 예정)
 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60ml / 9만원대, 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60ml / 23만원대

피부에 머문 고귀한 빛 설화수 랜턴컬렉션 The precious light on the skin Sulwhasoo Lantern Collection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가 1주년을 맞이했다.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도산공원 일대를 물들인 설화수의 1년을 기념하여,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의 시그너처 제품인 랜턴컬렉션이 한층 빛나는 구색을 갖추고 새봄으로 인도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설화수의 철학과 가치를 비롯하여 설화수만의 향기가 담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해온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지난 1년 동안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는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하게 하고 아름다움의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했다. 브랜드 헤리티지 체험부터 제품 구매, 뷰티 카운슬링, 스파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설화수의 품격 높은 콘텐츠는 플래그십스토어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안겼다.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의 모티브는 '랜턴(Lantern)'이다. 등불이 어둠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아시아의 지혜를 담아 아름다움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플래그십스토어의 오픈과 함께 탄생한 랜턴컬렉션 또한 등불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났다. 설화수의 대표 제품이자 스테디셀러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을 더욱 귀하게 담아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피부에 건강한 윤기와 고귀하고 은은한 빛을 선사한다. 여기에 플래그십스토어 1주년을 기념해 '자음수'와 '자음유액'이 랜턴컬렉션으로 더해져, 한층 완성된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렇게 구색을 갖춘 랜턴컬렉션 4종은 오직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에서만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다. 1층과 2층 부티크(Boutique)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2층 부티크에서는 랜턴컬렉션을 비롯한 설화수의 모든 제품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포근해진 봄, 미미의 빛을 찾으러 나서보면 어떨까. S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delivered the philosophy and the value of Sulwhasoo as well as the brand's expertise with the original scent of Sulwhasoo. In the past year,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brought Sulwhasoo's holistic beauty and the pleasure of discovering the wisdom of beauty. The Sulwhasoo quality, which allows you to feel the beauty of Korea through the brand's heritage in its products and in its beauty counseling and spa services, has deeply impressed everyone who has visited the flagship store. The motif of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focuses on the 'lantern'. It is meant to highlight beauty with Asian wisdom, just like a lantern guiding one's way through the darkness. The Lantern Collection was born with the opening of the flagship store, which was also inspired by a lantern. Sulwhasoo's signature, consistent seller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have brought out your skin's healthy radiance and valuable glow like a lantern brightening the darkness. In celebration of the flagship store's first anniversary, 'Essential Balancing Water EX' and 'Essential Balancing Emulsion EX' have been added to the Lantern Collection for a more complete product line. The four variants of the Lantern Collection are exclusively available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Why don't you plan a trip to search for the light of beauty in the warmth of the spring?

화사한 봄날에 드리는 기분 좋은 이야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주년을 기념하며

다가오는 3월 30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 1주년을 맞이한다. 아시아의 등불을 의미하는 랜턴 콘셉트로 꾸며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공간 및 전용 제품을 통해 아시아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미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향유, 향상을 비롯한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설화수는 이번 1주년을 기념하여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티 컬렉션(4월 초 출시 예정)을 선보인다. 홍삼발효차, 곡우녹차, 삼다연 제주영굴, 매화차 4종을 선보이는 이번 티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과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특별한 참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의 약속

설화수는 2017년 새봄을 맞아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자외선 및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폴루션 미백 선크림 '상백크림'을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했다. 업그레이드된 상백크림은 블록 브라이팅(Block Brightening) 기술로 더욱 강력해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선사하고, 설화수만의 피부 표면 코팅 제형 기술을 더해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도와주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 또한 SPF50+/PA++++인 국내 최고 자외선 차단 등급으로 향상되어 기존보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며, 상백크림에 함유된 백화사설초 성분이 미세먼지로 생겨나는 피부의 칙칙함을 케어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백크림은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답답함이 없는 폭신한 크림 제형으로 부드러운 발림성을 제공한다. 빛 굴절률이 좋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 피부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며 우수한 밀착력을 자랑한다. 더 뛰어난 효과로 돌아온 상백크림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 1호 소프트 글로우와 톤업 효과를 선사하는 2호 소프트 피치, 두 가지 호수로 출시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설화수 상백크림(미백/자외선 차단 이중 기능성 화장품) 40ml, 7만5000원대(3월 1일 출시)



雪花秀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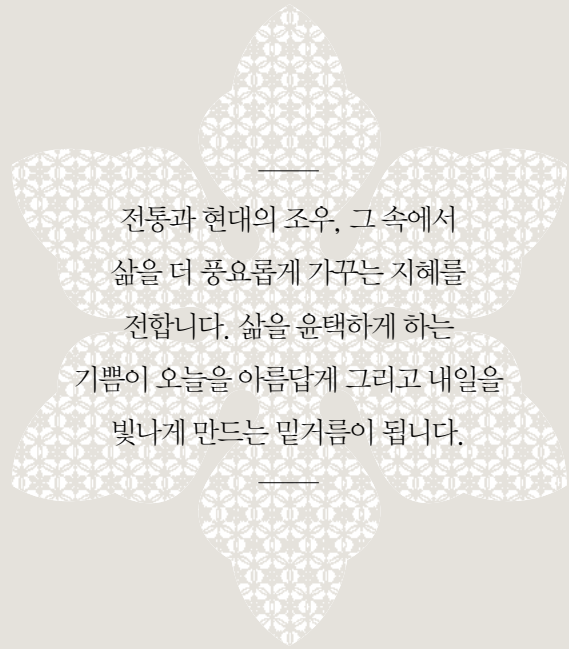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눈부시게 피어나는 빛반사로
매끈하게 빛나는 화사함을 입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피부 비장이 매끄러워질 때 피부는 빈틈없이 빛을 반사합니다
다각도 빛반사로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가 피부에 화사한 빛을 선사하고 보송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으로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피부를 가꿔줍니다. 이제, 터치만으로 매끈하게 빛나는 화사함을 경험하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실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
일
과



마음을 가꾸고 나를 찾는 향기

압 화 향 초 만 들 기

자신의 취향을 담아 만드는 향초, 은은한 빛과 향이 퍼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압화로 꾸며 봄의 정취가 물씬한 향초는 화사한 봄날의 일상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나만의 봄이 찾아온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이븐스모건

감성과 후각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오감 중 유일하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래서 향기의 성격에 따라 유쾌한 기분을 만들어주거나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또 공간 속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향은 그 공간의 느낌을 만들기도 한다. 향이란 어찌 보면 실내 장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효율적인 공간을 완성할 수도 있다.

집 안 곳곳 향기가 필요한 곳을 정하고, 그에 맞는 향을 선택해 저마다의 자리를 지정해 향 제품을 놓아본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초는 현관 입구나 방과 방 사이, 거실 등에 놓아두면 좋다. 향초는 방향과 탈취에 효과적이어서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도 실력을 발휘한다. 또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주지만, 다이닝 공간에서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식사 시간을 만들어준다. 식사를 마친 후 음식 냄새를 없애는 데도 향초가 일등공신이 된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릴랙스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침실과 욕실에는 디퓨저가 어울린다. 특히 라벤더와 제스민 향은 침실을 더욱

이쁘하고 포근하게 한다. 이외에도 드레스룸에는 포푸리가, 서재에는 룸 스프레이가 제 역할을 하며 향도 오래 유지된다.

일상의 품격을 더해줄 향초 나만의 취향과 향취를 머물게 하다

향초의 인기로 천연 원료를 이용한 고가의 향초와 디퓨저 등이 매체에 대거 소개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만의 작은 사치를 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캔들 공방이나 향초 DIY 도서를 통해 자기만의 향초나 왁스 태블릿, 디퓨저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향초를 만들 때에는 재료 선택이 중요하다. 향초 몸체를 완성하는 데는 천연 소이 왁스나 비즈 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천연 왁스는 녹는점이 낮아 연소 시간이 길고 풍부한 향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파라핀 왁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만들기도 수월하지만,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로 만들어져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향은 프레그런스 오일과 천연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본인의 취향에 맞는 향을



압화 향초 만들기

준비물 소이 왁스, 프래그런스 오일, 캔들 용기, 우드 심지, 심지 탭, 온도계, 스테인리스 비커, 핫플레이트, 압화, 핀셋

- 1 우드 심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탭에 꽂은 후 깨끗이 닦은 캔들 용기에 넣어 고정시킨다.
- 2 스테인리스 비커에 소이 왁스를 넣고 중탕하여 전체적으로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녹인다. 녹인 왁스가 70도일 때 프래그런스 오일을 5~7퍼센트 넣고 잘 섞은 후 용기의 2/3 정도를 채운다.
- 3 왁스가 굳는 동안 종이로 용기 사이즈의 원을 그린 후, 원 안에 핀셋으로 압화를 올려보며 디자인한다.
- 4 왁스가 충분히 굳으면 녹인 왁스를 한 번 더 부어 채운다. 이렇게 두 번 나누어 부어야 표면이 매끄러워진다.
- 5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면 디자인한 압화를 캔들 위에 살포시 올려 장식해 마무리한다.

유니크 캔들 공방 '이본노모건' 클래스 : 원데이 클래스와 취미반이 있으며 100퍼센트 예약제, 11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캔들, 석고 방향제, 왁스 태블릿을 비롯해 프랑스 지수 등을 배울 수 있다. (위치: 2호선 홍대입구역 1, 2번 출구에서 도보 8분 / 문의: www.yvonnemargun.com / 070-7622-9609)

선택하거나, 직접 조향調香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향을 선택할 때 무조건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테라피 효과가 있지만 임신부나 아이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그 효능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 해요. 또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면 효능이 사라져요. 초보자분들에게는 인체에 무해한 프래그런스 오일을 선택할 것을 추천해드려요.”

캔들 스튜디오 '이본노모건'의 이명성 대표는 오일의 경우 천연이라고 맹신하지 마라고 당부한다. 또 향초를 만들 때 잘 살펴야 할 것은 용기 사이즈에 따른 나무 심지 사이즈의 선택이다. 용기의 지름에 따라 선택하는데, 지름 3~4센티미터는 S, 5~6센티미터는 M, 7~8센티미터는 L, 9~10센티미터는 XL가 적당하다. 용기에 비해 심지가 작으면 터널링 현상(심지를 중심으로 홀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향초 용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향초용 용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안 쓰는 머그컵이나 유리컵, 사탕이나 초콜릿이 담겼던 텀 케이스, 다 먹고 난 잼 병 등을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스티커나 라벨을 붙여 장식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감각적인 향초를 완성할 수 있다.

향초의 얼굴을 장식하는 압화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중

류나 가짓수가 많아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압화를 놓을 때 가장 쉬운 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리스 형식으로 심지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싸는 것. 단, 심지 주변에 가깝게 붙여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향초로 즐거운 시간

향초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천연 소이 왁스 향초라고 하더라도 태울 때 불완전연소 산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한 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혹시 터널링 현상이 생겼다면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왁스를 녹여 평평하게 만든 다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초 액세서리도 있으면 매우 유용하다. 향초를 끌 때 입으로 불어 끄면 연기와 그을음이 생기므로 워 디퍼(Wick Dipper)를 사용해 촛불을 살짝 덮어 끈다. 심지를 자를 때에는 캔들 전용 가위 워 트리머(Wick Trimmer)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 캔들 워머(Candle Warmer)를 사용하면 심지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도 공간에 향이 골고루 잘 퍼지게 할 수 있다. 향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향초로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며, 고운 계절의 고운 감성을 더욱 곱게 빛내보기를. S

쓰임에 아름다움을 새기다 Beauty engraved on usage

붓을 넣어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필통은 문인 사대부의 문방 필수품이었다. 학문 연마와 사회 활동을 위한 문방용품의 하나일 뿐이었지만, 옛 선조들은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절제미를 보여주는가 하면 화려한 공예로 미적 감각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김주일 작가

화각華角 공예는 회화적인 성격을 지닌 각질 공예로서 나전칠기螺鈿漆器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우리 고유의 전통 왕실 공예이다. 화각은 소의 뿔을 종잇장처럼 얇게 저며 반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쪽에 광물성 안료顔料로 무늬를 그린 후, 무늬가 그려진 면을 대나무를 비롯한 나무로 만든 물건 위에 덧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각 공예품은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그 때문에 왕실과 귀족층의 기호품이나 애장품에 이용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화각 필통은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솜씨를 잘 보여준다. 높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육각통을 연결해 만든 것으로, 보통 화각 공예품은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만든 화각을 붙이는 반면 이 필통은 화각을 각 면의 크기에 맞추어 붙였다. 앞면과 뒷면에는 소나무와 까치, 호랑이, 대나무, 학이 그려져 있고 옆면에는 국화, 복숭아, 소나무, 학이 그려져 있어 길상吉祥의 의미도 담긴 아름다운 문방 용품이다.

한국 전통 주병의 형식과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기능성을 지닌 데스크 키트(Desk Kit)를 완성한 김주일 작가의 작품은 분리 시 연필꽂이, 명함, 휴대폰 거치대, 클립 보관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작품 표면에 선을 음각과 양각 선으로 표현하여 사용성을 가미해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 요소로 부각했다. 고루하지 않아 더욱 멋스러운 공예 문구를 보여준다. 전통과 현대의 필통,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 깃든 멋과 지혜가 잔잔히 느껴진다. S

Horn engraving involves thinly slicing the ox horn into translucent sheets, and drawing patterns on the inside by using mineral pigments to attach the patterned side onto wood or bamboo objects for ornamentation. Horn engraving work, however, was not widely available because the materials used were rare, and the crafting process was meticulous. For this reason, it was only enjoyed by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and was not widely known to the commoners.

The horn engraved pencil case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is representative of the craft's glamorous colors and exquisite skills. Three hexagonal cases of different heights were connected to complete this case. Most horn engraved cases attached equal-sized rectangular sheets, but this case has attached sheets that are sized to fit each side. It was a beautiful stationery item that brought good luck, as it had pine trees and magpies, tigers, and cranes on the front and back, and chrysanthemums, peach, and cranes on the sides. Artist Jooil Kim's multipurpose Desk Kit, which has modernly interpreted, Korean traditional wine bottles, can be used to hold pens, business cards, mobile phones, and paper clips when separated. The surface has engraved lines and relief for functionality and ornamentation. It does not look tedious, and it is beautiful all around. You can feel the wisdom in this pencil case of tradition and modernity beyond its superficial beauty.



〈화각필통華角筆筒〉
12.5×20cm, 19세기 조선



〈Desk Kit〉
김주일, 알루미늄, 금속 선반 작업, 표면 아노다이징 7x7x14.5cm



〈The skin of desire_Celadon〉, 유의정, 29×29×48cm, 2015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

갤러리스트 구나운

숨겨진 국내의 재능 있는 젊은 작가를 지원하고, 한국의 현대미술을 다룬 서적과 아트 매거진을 발행해 동시대 미술을 조명하는 갤러리구 구나운 대표. 애장품인 유의정 작가의 청자靑畵는 그와 많이 닮아 있다. 틀을 깨는 발걸음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진정성을 담아 꾸준히 전진할 뿐.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독립기획자, 컬렉터, 갤러리스트, 미술 전문 출판사 발행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나운 대표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초에도 해외 아트 페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열성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번역해 해외에 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동안 중국 작가들의 활약이 컸어요. 그런데 요즘 해외 시장에서 한국 단색화가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아트를 컬렉션하는 게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에겐 전시 기회조차 많지 않아요. 작품이 뛰어나도 자신을 알릴 수단이 부족하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작가를 지원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저는 정말 한국 작가들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다만 덜 알려진 것뿐이죠. 보통 갤러리는 소속 작가와 함께 커가거든요. 저희는 젊은 갤러리니까 젊은 작가들과 함께 발맞추어 가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사람을 ‘컬렉터’라 부른다. 이 과정에서 컬렉터는 숨어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 세상에 내놓는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컬렉터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컬렉션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좋은 작품이 있어도 드러내길

어려워한다. 해외 컬렉터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컬렉션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장한 것을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쁨을 나눈다. “컬렉션은 개인 자산인 동시에 예술품이기에 인류의 유물이 되기도 하죠. 좋은 작품을 잘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도 컬렉터의 의무인 것 같아요.” 갤러리 대표이기 이전에 컬렉터이기도 한 그의 애장품은 갤러리구에서 전시하기도 했던 유의정 작가의 매병 청자이다. 위트 있고 신선한 감각을 지닌 젊은 작가의 작품은 그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최근 도예 작가들도 공예가가 아닌 현대미술 작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유의정 작가는 도예와 한국적인 팝아트를 결합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어요. 특히 동서양을 넘나들며 동시대의 상징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도자기에 차용하는데, 이 작품은 박물관에서만 보던 상감청자에다 표면이 흘러내리는 느낌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렸어요. ‘미래의 유물’이라는 주제도 흥미로웠고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고 미래에는 유물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겠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신 스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아가는 구나운 대표. 예술을 사랑하고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 응원을 보낸다. S





〈사이라이트(ShyLight)〉, 스튜디오 드리프트,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실크, 모터, (close) 39×112cm, (open) 39×161.5cm / 90cm, 2016



〈21c 최후의 만찬(21c The Last supper)〉, 한호, 캔버스에 한지, 유화, 목탄, LED, 거울, 강화유리, 비디오, 1260×300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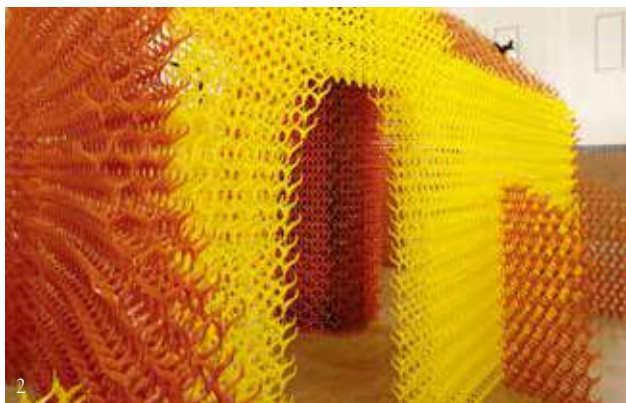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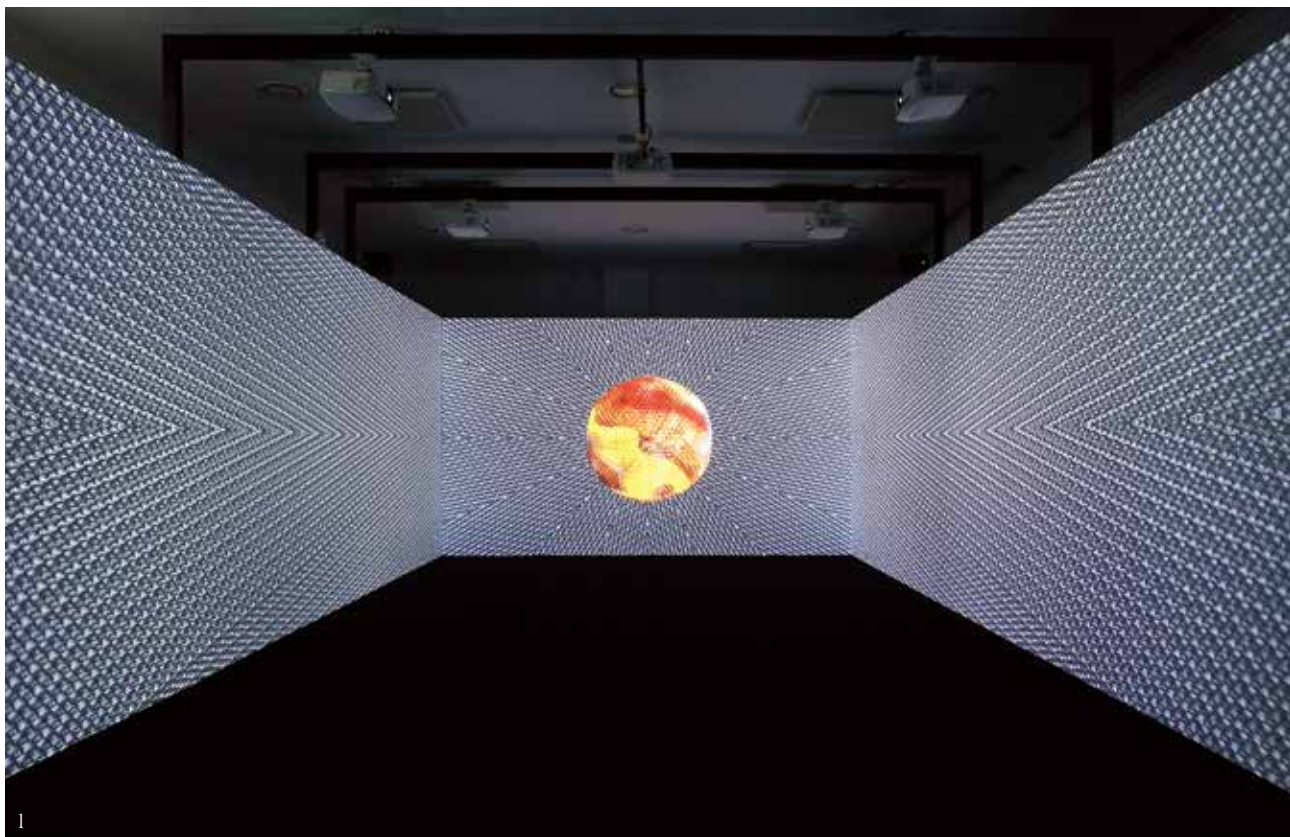
다빈치의 유산, 첨단 예술로 돌아오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그가 남긴 3만여 점의 기록물인 '코덱스'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들이 문화역서울284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술과 첨단 기술의 창조적인 만남은 마치 21세기의 다빈치와 조우한 듯하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코이안(koian)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종교, 철학, 건축, 수학, 천체학, 물리학, 해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발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발전시켰다. 이는 다빈치 사과의 총체이자 깊은 신념과 통찰이 담긴 기록물 '코덱스(Codex)'로 남았다. 〈다빈치 코덱스(Da Vinci Codex)展〉은 국내외 7팀의 작가가 다빈치의 '코덱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술과 과학,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컨버전스 아트를 보여준다. 20년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연구 팀인 '엘프레(Leonardo 3)', 자연을 바탕으로 고차원 기술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 MIT 교수이자 '치타 로봇'으로 유명한 세계적 로봇 공학자 '김

상배',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서 작업하는 디자이너이자 현대미술가 '장성', 자동차 디자이너이자 UNIST 국립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인 '정연우', 순수미술과 공학 기술을 결합한 뉴미디어 아티스트 '전병삼', 빛의 작가로 알려진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장르 사이에 존재하는 불협화음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방식을 활용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결과물을 창조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스튜디오 드리프트의 〈사이라이트(ShyLight)〉. 음악에 맞춰 돔 천장에서 오르내림과 피고 짐을 반복하는 여러 송이의 꽃과 같은 작품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튜디오 드리프트는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스승은 자연이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을 반영하듯,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 기술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라이트(ShyLight)를 제작했다. 빛의 강약에 따라 꽃



1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고 지도인 '코텍스'를 영상으로 풀어낸 프로젝션 영상이 상영되는 '다빈치 인사이트'

2 <모비_키에사(Mobi_Chiesa)>, 장성, 폴리프로필렌, 2015~2016

3 <기계 사자(Mechanical Lion)>, 엘뜨레, 나무, 금속, 빛줄, 320×95×170cm, 2012

4 <오토너머스 모바일(Autonomous Mobile)>, 정연우, 철, 알루미늄, 섬유강화플라스틱, 메카트로닉, 400×600×400cm, 2016

5 <얇은 모나리자(Thin : Mona Lisa)>, 전병삼, 55×80×40cm, 2016

앞을 피우고 오므리는 운동에서 모티브를 얻어 고도로 진화된 자연의 메커니즘을 조명 디자인으로 탄생시켰다. 특히 크로스오버 음악가 겸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음악과 빼어난 조화를 이뤄 한층을 머물게 한다. 장성의 <모비_키에사(Mobi_Chiesa)>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가운데 교회 건축물의 기하학 평면도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작가는 '모비(Mobi)'라는 디자인 도구가 어떻게 건축, 미학, 심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작은 '모비'가 뭉쳐 신비롭고 매혹적인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가진 예술 작품이 되었다. 자동차 디자이너인 정연우의 <오토너머스 모바일(Autonomous Mobile)>은 다빈치의 테엽 자동차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600년 전 다빈치가 만든 자동차 오토모바일을 거쳐 미래의 자동차 오토너머스 모바일로의 변화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움직임'이라는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다. 단단한 껍데기를 갖게 되었을 뿐. 작가는 이런 움직임의 껍데기에 숨어 있는 미래의 자동차를 엿보고자 한다.

엘뜨레(Leonardo 3)는 1998년 연구소를 설립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하는 집단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 '코텍스'를 수집, 연구하여 코텍스의 다양한 디자인과 텍스트를 현대 기술과 화학으로 조합해 기능성을 갖춘 모형이자 예술품으로 구현한다. 전시장의 1층과 2층 곳곳에서 엘뜨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뉴미디어 아티스트 전병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6세기 명작인 <모나리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각 작품 두 점과 영상 총 세 점

의 작품을 선보였다. <얇은 모나리자(Thin: Mona Lisa)>는 초고해상도로 출력된 원작과 동일한 크기의 모나리자 인쇄본 3000장을 약 0.25밀리미터 간격으로 조금씩 빗겨 겹겹이 쌓아 올린 작품이다. 또한 종이 적층 기법을 통해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서 있는 세로 줄무늬 패턴의 <얇은 모나리자 얼굴(Thin: Mona Lisa Face)>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그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로 내놓았다. 다빈치의 구상 그대로 열두 제자를 배치했으나, 패러디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표현했다. LED와 거울, 9각의 공간 구성이 3차원의 그림과 빛을 통해 4차원 공간으로 재구성되는데, 변화하는 컬러에 따라 다른 느낌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빈치의 코텍스를 미디어 영상,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인터랙티브 아트, 증강현실(AR) 게임,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접목하여 풀어냈다. 특히 코텍스를 프로젝션 영상으로 풀어낸 '다빈치 인사이트'는 인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3면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벽에 다빈치가 지닌 사고의 무의식부터 끝없는 관찰을 통한 발견, 계속되는 실험과 노력의 과정이 화려한 영상으로 쏟아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다빈치 코텍스展>은 4월 16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산을 다각도로 감상하는 동시에,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S

꽃과 바람 그리고 온기를 담았어요

술술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의 기운.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 가득 담은 봄기운을 맞이하세요.

에디터 권지에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사용하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샘솟는 봄을 담은 접시는 이꽃담 작가 작품.



기하학 형태로 조형성은 물론 실용성을 더했다. 뚜껑 위에 핸드 페인팅 기법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그려 넣은 도자 보석함은 유아리 작가 작품 by KCDF.



수채화 컬러감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서로 다른 얼굴 크기의 세라믹 티스푼은 전인희 작가 작품 by 아원공방.

영하로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기세를 부렸던 겨울이 흔적마저 사라질 즈음 찾아온 반가운 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모두 아름답기 그 지없지만 유독 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죠. 상상했던 가지 끝으로 연 듯빛 생명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따뜻해진 하늘 위로는 '봄, 봄, 봄' 봄이 왔다며 지저귀는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커튼을 활짝 젖히고 창문 열어 봄을 맞이해보세요. 그리고 봄이 왔음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쇼핑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계절이 바뀌며 새롭게 단장한 리빙 스토어에서 만난 제품들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도예가의 손에서 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 접시와 볼 안에는 정성 어린 꽃문양이 가득합니다. 어디 꽃뽀이겠습니까. 길조라 우리 선인들도 사랑했던 새는 물론이요, 정유년을 맞이하여 양중맞은 닭 문양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뭇잎 하나, 조그만 새 한 마리만 그려져 있어도 싱그러운 만큼 한눈에 쏙 들어오는 소품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입해보세요. 식탁에 놓이는 순간, 봄이 활짝 피어날 테니까요. 식탁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행복의 기운 또한 피어날 것입니다. S



마치 꽃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현해 놓은 듯하다. 우아함이 넘쳐 흐르는 옥사 실크 조각보는 배영진 디자이너 작품으로 by COSER.



수공예의 절정을 보여준다. 전통 도자기 단지와 도자 단추를 천에 바느질한 작품은 김지혜 작가 작품으로 by KCDF.



무던한 듯 세련된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과일을 올려놓으면 더욱 멋스러울 모란 양각접시는 이정용 작가 작품으로 by 다이닝오브제.



종이의 질감과 색의 농도 변화를 도자기 위에 섬세하게 구현했기에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프린팅 접시는 트리트리.



식막했던 식탁 위에 봄의 상쾌함을 그대로 펼쳐놓는다. 초록 풀잎들이 프린팅된 테이블 러너는 Proflax by 이혜베드.



어느 곳에 놓고 보아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블루 컬러의 꽃무늬 패턴을 그린 세라믹 컵은 이혜미 작가 작품으로 by 윤희앤즈.



손잡이 하나에도 지극정성이 느껴진다. 한국 전통의 상감기법을 작가의 미감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커피 세트는 양지운 작가 작품.



도예가들이 만든 실용 식기는 섬세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파스텔컬러 톤의 2단 케이크 플레이트는 김남희 작가 작품 by A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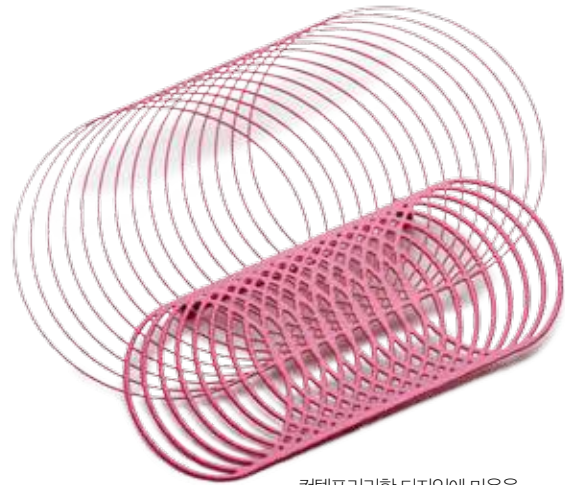


언제나 함께하는 작은 새 한 마리. 동물 수집가의 테이블 시리즈 중 하나인 세라믹 새 트레이는 박교운 작가 작품.

봄의 화원처럼, 다채롭고도 고운 자태

두껍고 무거웠던 옷들은 고이 접어 서랍 속에 넣어주세요.
이제 환하고 밝은 꽃들의 컬러로 꾸밀 시간입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 스프링을 모티브로 얇은 금속판을 섬세하게 가공한 브로치는 이수인 작가 작품.



어여쁜 핑크 꽃잎이 브로치와 만나 더욱 사랑스럽다. 꽃잎의 부드러운 곡선이 독특한 멋을 자아내는 브로치는 이영주 작가 작품.



봄의 경쾌함이 그대로 실려 있는 듯하다. 실크에 도트 무늬 프린트를 염색한 캔디 스카프는 정순주 작가 작품.

봄날의 산책에서 만난 거리의 풍경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활기차 보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꽃들의 행진은 이제 서울까지 물들이며 많은 이를 행복하게 만들죠.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을 지나칠 때면 마치 화원에 들어선 것처럼 다채로운 색감과 향기로 몸과 마음이 싱그러워집니다. 콘크리트 벽, 갈라진 틈 사이로 고개 내민 이름 모를 꽃조차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꽃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색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란 개나리꽃과 분홍 진달래꽃 등, 무채색의 겨울이 지나고 컬러풀한 봄이 온 만큼 몸을 위한 단장 역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꽃의 색감처럼 명도가 강한 색들은 물론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이기도 한 연두색과 하늘 파랑까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명도가 높은 핑크, 옐로 등을 골라보세요. 하지만 컬러풀한 의상에 자신 없다면 구두나 핸드백 또는 양말 등의 포인트 컬러로 셀렉트하는 것도 작은 센스입니다. 상하의 모두를 동일 계열의 파스텔컬러로 그라데이션 매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환한 미소까지 더한다면 더욱 우아해 보일 것입니다. S



원색의 알록달록함이 옷 위에서 넘실 넘실 춤을 춘다. 박순덕 안초장의 수공예 브로치는 국립무형유산원



허전했던 손 위에 봄꽃이 활짝 핀 듯하다. 생동감 있게 피기 시작한 꽃 색깔의 책주름 반지는 조하나 작가 작품.



색과 더불어 소재가 주는 텍스처의 질감으로 색다른 감성을 만들어낸다. 비닐봉지와 타이벡으로 만든 반지갑은 김태연 작가 작품.



오방색의 부드러운 색감이 아름답다. 조각보의 정성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담아 수놓은 삼베 가방은 정은진 작가 by 해브빈서울.



한지사의 질감과 색의 깊이를 기하문을 응용하여 디자인했다. 수작업으로 염색을 한 보타이는 한드랑, 김수림 작가 by KCDF.



봄비 내리는 거리에서 사선을 사로잡는다. 개나리꽃처럼 밝은 노란색의 우산 겸용 양산은 정순주 작가 작품.



부드러운 소재인 벨벳의 우아함이 넘쳐 흐른다. 아스팔트 위에 화려함을 수놓는 바이올렛 슈즈는 바이미나.



리스팅한 느낌으로 다크 톤의 의상과 잘 어울린다. 비닐봉지, 타이벡, 우레탄 비닐로 만든 솔더백은 김태연 작가 작품.



핑크 안경테와 블랙 다리의 세련된 조화 모노톤의 옷으로 스타일링을 했다면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격이다. 김종필 디자이너 by 소생공단.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오! 캐롤〉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업무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감성을 자극하는 쇼 뮤지컬 〈오! 캐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초연한 〈오! 캐롤〉이 새로운 무대에서 앙코르 공연을 시작했다.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와 막을 새 없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입소문으로 즐길 거리가 더 풍성해졌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닐 세다가의 히트곡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 〈오! 캐롤〉은 1960년대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지는 커플들의 러브 스토리를 담았다. 여유가 흘러넘치는 휴양지가 배경인 만큼 무대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흥겨운 기운이 감돈다. 무엇보다 이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은 비주얼과 사운드를 조화롭게 잘 버무린 쇼 뮤지컬의 재미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Oh! Carol', 'Stupid Cupid', 'You Mean Everything To Me' 등 향수를 자극하는 중독성 강한 팝송 넘버가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면, 미국 1960년대 레트로 스타일 의상과 화려한 군무는 눈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국내 뮤지컬 1세대 배우 남경주, 최정원, 전수경, 김선경의 출연은 중장년 관객들을 유혹하는 비장의 무기. 뮤지컬계의 최불암과 김혜자로 불리며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남경주와 최정원의 호흡을 기대하며 공연장을 찾는 이들도 많다. 젊은 배우들의 열연 또한 인상적이어서, 전 세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5월 7일까지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1577-3363



유키 구라모토 화이트데이 콘서트 〈봄날의 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유키 구라모토가 한국에 왔다. 화이트데이 주간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무대를 로맨틱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음악, 라디오 시그널을 통해 20여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키 구라모토. 듣기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의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봄이다.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만큼 봄과 잘 어울리는 요소가 더 있을까. 화이트데이 주간으로 정해진 그의 내한 소식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다. 'Romance', 'Lake Louise', 'Warm Affection'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공연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희망, 배려, 따뜻한 마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내 음악을 통해 전해졌으면 한다"는 유키 구라모토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다른 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피아노 소리에만 집중했다. 피아노 솔로와 콰르텟의 앙상블 속에서 유려하면서도 소박한 피아노 선율은 더욱 도드라진다. 세상에 음악과 나뉘어 없는 듯, 고요하고 달콤한 순간을 음미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관심을 둘 만한 공연.

일시 3월 17일 장소 마포아트센터 문의 02-3274-8600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이라는 뮤지컬 넘버로도 유명한 〈지킬앤하이드〉가 대구, 경주 등을 거쳐 울릉 서울로 무대를 옮겼다. 한국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월드 투어 버전이다. 일시 3월 8일~5월 21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88-5212

발레 〈돈키호테〉



정통 희극 발레 〈돈키호테〉가 유니버설발레단의 화려한 무대 연출과 만나 더 유쾌해졌다. 관전 포인트는 박력 있는 투우사 춤과 열정적인 플라멩코, 판당고 등의 스페인 춤. 유머러스하게 극의 전개를 잇는 발레 마임도 볼거리다. 일시 4월 5~9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연극 〈파우틴헤드〉



지난해 미국 토니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연극 연출가로 떠오른 이보 반 호프의 국내 연출작 주체적인 성격의 하워드와 평판에 집착하는 피터 등 다양한 인물들 통해 삶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묻는다. 네덜란드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일시 3월 31일~4월 2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책 〈헬렌정의 프랑스 자수〉



클래스와 책을 통해 대중에게 프랑스 자수의 매력을 알려온 헬렌정의 신간 '프랑스 자수에 갖 입문했거나 독학하려는 이들을 위해 자수의 기본과 중요 기법, 도안, 팁을 세세하게 담았다. 책 속에 수록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자수 동영상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이 헬렌정 출판사 동아일보사

전시 〈YOUTH〉



자유, 반항, 순수, 열정 등으로 대표되는 청춘의 순간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았다. 사진작가 겸 영화감독 래리 클락, 사진작가 라이언 맥킨리, 플라로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대시 스노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사진, 그래픽, 영상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시 ~5월 28까지 장소 D 뮤지엄 문의 070-5097-0020

전시 〈이집트 보물전〉



미라, 화려한 장신구, 조각상 등 230여 건에 달하는 이집트 보물들을 소개한다. 전시품은 모두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품. 전시실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영원한 삶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던 고대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시 ~4월 9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1688-9891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h3>클렌징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35,000원대 	<h3>에센셜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9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촘촘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선체TM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105,000원대 	<h3>스페셜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파니셔 80ml 90,000원대 소노보크림 (TF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200,000원대 명의본초염플 명인진TM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 주는 고농축 염플 7ml×5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지선체TM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넥크림 60ml 80,000원대 	<h3>자정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정수 지친 피부를 정돈해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자정 클렌징 오일 125ml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자정 클렌징 폼 125ml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210,000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자막 아몰리케이트와 시원한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자정 미백 크림 50ml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줌과 동시에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폴루션 마스크림 40ml 75,000원대 	<h3>여민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130,000원대 여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40,000원대 	<h3>자음생/자여진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150,000원대 자음생진본유 인삼 중차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120,000원대 자음생이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또렷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신맛한 질감) 60ml 250,000원대 	<h3>수술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42,000원대 수술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 선플루이드 50ml 55,000원대 	<h3>바디 & 헤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초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80,000원대 						
<h3>진설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설수 적송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달전 125ml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송 성분과 글루타미네이커 마사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270,000원대 진설이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20ml 65,000원대 	<h3>다함설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함설크림 단심과 홍심이 절음의 에너지로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차이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650,000원대 	<h3>옵션 라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85,000원대 	<h3>ME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73,000원대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 오일 성분^이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40,000원대 							
<h3>쿠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호 패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5호 미디엄 베이지, 29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11호 패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5호 미디엄 베이지, 29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탄탄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목련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h3>메이크업밸런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화이트 핑크, 2호 화이트 퍼플, 3호 화이트 그린 1호 화이트 핑크, 2호 화이트 퍼플, 3호 화이트 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크업밸런스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스하는 메이크업밸런스 35ml 60,000원대 	<h3>CC</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60,000원대 	<h3>채담 메이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3호 살구 베이지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3호 살구 베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김새만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h3>자정 메이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유자시켜주는 자정 미백 팩트 9g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h3>에서 메이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SPF 25 / PA+)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h3>진설 메이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설 스킨케어 (SPF 25 / PA+)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팩트 파운데이션 30ml 90,000원대 진설 유팩트 (SPF 35 / PA+++) 영양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h3>볼류메이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미디엄 핑크(커버), 29호 미디엄 베이지(커버)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류메이닝파운데이션 (SPF 35 / PA+++)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80,000원대 	<h3>컨실러 스트릭</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센셜 컨실러 스트릭 부드럽게 도포되는 얼굴에 넓게 퍼져서 결점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트릭 5g 40,000원대 	<h3>레이디스 블러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에프리트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6호 스위트 로즈,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1호 에프리트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6호 스위트 로즈,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혈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60,000원대 	<h3>에센셜 립세럼 스트릭</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에프리트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6호 스위트 로즈,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1호 에프리트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6호 스위트 로즈,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센셜 립세럼 스트릭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3명)

설화수의 독자적인 미백 성분인 백삼의 효능이 가득한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에 맑고 투명한 어린 빛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오! 캐롤>(3명)

1960년대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지는 러브 스토리를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 <오! 캐롤>의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7년 4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오! 캐롤> 관람권
- 당첨자 발표 3/4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7년 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3명)

- 송경숙 서울 관악구 성현로
- 최영숙 창원시 마산 합포구
- 한경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관람권(3명)

- 박선미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 우경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 최근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17년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Sulwhasoo



얼굴 가득 빛을 채우는 백삼의 힘으로 피부가 환하게 밝아지는 볼륨 브라이트닝을 하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본연의 빛을 잃어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피부에 빛을 채워 환하게 밝혀주는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귀한 백삼 성분이 피부 탄력을 채워 생기 어린 피부로 가꿔주고 칙칙한 피부톤과 잡티를 개선시켜 맑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볼륨 브라이트닝'을 경험하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설화지혜(8p)
- 피부 섬기기(12p)
- 新 장인을 만나다(16p)
- 공간미감(22p)
- 건너다(28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2. 누리다

- 설화인(36p)
- 어우러지다(44p)
- 설화풍경(50p)
- 설화보감(54p)
- 아름다운 기행(60p)
- 설화수를 말하다(66p)
-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3. 익히다

- 배움의 기쁨(78p)
- 한국의 멋(82p)
- 설화에장(84p)
- 읽다(86p)
- 집 안 단장(90p)
- 몸 단장(9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뮤지컬 <오! 캐롤>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7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